

제12회 4/14윈도우포럼

가정 친화적 교회 교육 광주포럼

차세대 교육 패러다임 바꾸기

Paradigm Shift of Education for Next Generation

" 교회가 부모와 가정을 중심에 세워라!"

Church's Prioritizing Parents and Family!

2018. 6. 2.(토)

오전 9시 30분 - 오후 4시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동명교회** (광주 동구 동명로20번길 31)

TIME	발제자	발제	좌장 / 논찬자
오전 세션 <10:00~12:40>	Matthew Ling 목사 (세계변혁운동 가정 챌린지 퍼실리테이터)	가족 제자화의 필요성: 교회와 가정의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좌 장: 나용화 목사(전 개신대학원 총장) 논찬자: 이덕전장로(뉴패러다임 인스티튜트 대표) 통역, 논찬자 :조영미 사모(광주 교대, 광신대 객원교수)
오후 세션 <13:40~16:00>	박상진 교수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과,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소장)	가정 친화적 교회 교육의 방안	좌 장: 최종휴 목사(동명고 교목) 논찬자: 이상범 목사(섬서유니온 광주지부장) 이승용 선교사(쳐치홈스쿨)

공동주최 SMS 시니어선교한국 | 4/14 window KOREA 4/14윈도우 한국연합

공동주관 광주.전남시니어선교회, 광주기독단체 연합회, 광주동명교회

후 원 광주기독교단 협의회, 광주시 성시화 운동본부, CTS광주방송, 광주CBS, 광주극동방송, 기독타임즈, 미션21

국민일보 | CTS 기독교TV | PROMISE CHURCH | 할렐루야교회 | OneHope | CEF

등록신청 등록비 15,000원 (온라인 등록 후 조기 송금시 10,000원) https://goo.gl/EthCY1

DJM 카페 DJM 4/14윈도우운동

facebook www.facebook.com/4/14윈도우, Korea

4/14윈도우란, 한 생애 중 10년 간(4~14세) 열려 있는 기회의 창을 말합니다.

가정친화적 교회교육 광주포럼

“차세대교육 패러다임 바꾸기 – 교회가 부모와 가정을 중심에 세워라”

Paradigm Shift of Education for Next Generation

- Church‘s Prioritizing Parents and Family!

4/14윈도우한국연합은 본 포럼을
“제12회 4/14윈도우포럼”으로 함께합니다.

□ **일시 :** 2018.6.2 (토) 09:30-16:00

□ **장소 :** 광주동명교회 교육관 2층

□ **참가단체**

1) 공동주최: 시니어선교한국, 4/14윈도우한국연합
2) 공동주관: 광주전남시니어선교회, 광주기독단체연합회, 광주동명교회
3) 후원: 광주기독교교단협의회, 광주성시화운동본부, CTS광주방송, 광주CBS, 광주극동방송, 기독타임즈, 미션21, 국민일보, 뉴욕프라미스교회, 할렐루야교회(분당), 원호프(OneHope, Korea), 한국어린이전도협회 광주지회
4) 협력 단체:
   교사의 벗, 교회교육훈련개발원, 성서유니온 광주지부, 광주교직자선교협의회, 국제문화예술기구(TCI),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기독교홈스쿨협회, 꿈의학교, 놀이미디어교육센터, 다음세대개발원(FOC), 서울우리교회, 시니어선교한국, 어린이전도폭발, 어와나, 원바디(호산나), 예수교대한성결교회 교육국, 올마이티바이블, ㈜이롬, 좋은교사운동, 좋은나무성품학교, 좋은콘텐츠를만드는사람들, 주일학교사역자모임, 코스마, 처치홈스쿨, 크리스챤연합신문, 크리스천투데이, 파이디온선교회, 새중앙교회(평촌), 한국기독교대안교육연맹, 한국성품선교회, 한국어린이전도협회, 한동대학교, 할렐루야교회, 희망의교회, CBSI Korea, CTS기독교TV, e미디어워치, Good TV, GICS 기독대안학교, IBLP Korea, KAICAM, OneHope Korea (원호프), SCHOOL IMPACT, SEVEN STEP 선교회 등

4/14 window KOREA **차세대교육 패러다임 바꾸기** – 교회가 부모와 가정을 중심에 세워라

일 정 표

(2018.6.2.토)		page
오 프 닝		
개회 찬양 (동명교회 찬양팀 인도)	09:30–09:50	
다음세대를 위한 회개의 기도 (느헤미야 선교사 인도)	09:50–10:00	
환영사 / 축사 / Key Note Speech		
동명교회 이상복 담임목사	10:01–10:04	1
시니어선교한국 대표 최철희 선교사	10:04–10:07	2
4/14윈도우한국연합 대표회장 장순흥 한동대 총장	10:07–10:22	3
(공동주최기관 간) 업무협약서 교환	10:22–10:25	
포럼 취지 (AGENDA SETTING) 4/14윈도우한국연합 사무총장 허종학 장로	10:25–10:30	5
제 1 부 오전 세션		
(제1강) 주 발제: 세계변혁 가정 챌린지 퍼실리테이터 Rev. Matthew Ling		
가족 제자회의 필요성 – 교회와 가정의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10:40–12:40**	13
(Family Discipleship: The Church and the Home)	*발제 80분	(30)
– 좌장: **나용화 목사 (개신대학원 전 총장), / 통역: 조영미 사모**	(통역 포함)	
– 논찬: **조영미 사모 (광주교대, 광신대 객원교수)**	*논찬 15분	44
이덕진 장로 (뉴패러다임인스티튜트 대표)	(7분*2명)	56
– 질의응답 (Q&A), 기도 후 마무리	*Q&A 20분	
사진 촬영 및 점심 식사 (광주 동명교회)	**12:40–13:40**	
제 2 부 오후 세션		
(제2강) 주 발제: 장로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과 박상진 교수		
가정 친화적 교회 교육의 방안	**13:40–15:40**	60
(Family-Friendly Church Education)	***발제 70분**	
– 좌장: **최종휴 목사 (동명고 교목)**	*논찬 15분	
– 논찬: **이상범 목사 (성서유니온 광주지부장)**	(7분*2명)	93
이송용 선교사 (처치홈스쿨)	*Q&A 30분	97
– 질의응답 (Q&A), 기도후 마무리		
클 로 징 / 리뷰, 결단, 광고, 기도 후 폐회	(기도: 방충헌 장로) 15:40–16:00	104

주발제자, 좌장, 논찬자, 사회자 명단

<table>
<tr><td colspan="2" rowspan="2">구분</td><td>강사</td><td>좌장/논찬자</td><td>연락처</td><td>사회자</td></tr>
<tr><td>진행 및 사무 총괄</td><td>광주시니어선교회
회장</td><td>010-3646-8291</td><td>정동훈 장로</td></tr>
<tr><td rowspan="5">오전</td><td rowspan="4">오프닝</td><td>찬양인도- 동명교회</td><td></td><td></td><td rowspan="4">김민섭 목사
국제문화예술
기구 이사장
010-9749-0691</td></tr>
<tr><td>기도인도- 시니어선교한국</td><td>느헤미야 선교사</td><td>010-5496-3714</td></tr>
<tr><td>이상복 목사 010-5898-1253
최철희 선교사 010-8490-1003
장순흥 HDGU 총장
허종학 4/14윈도우 사무총장</td><td colspan="2">환영사
축 사
축 사
어젠다 세팅</td></tr>
<tr><td>1부</td><td>Matthew Ling 목사
-세계변혁운동 가정 챌린지 퍼실리테이터
-세계복음주의연맹(WEA) 가정분과장</td><td>좌장 나용화 목사
논찬 조영미 사모
논찬 이덕진 장로
(*통역 조영미 사모)</td><td>010-5601-2302
010-2609-5524
010-5225-8033</td><td>이 진 목사
광주동명교회
교육담당
010-6707-1957</td></tr>
<tr><td rowspan="2">오후</td><td>2부</td><td>박상진 교수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장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td><td>좌장 최종휴 목사
논찬 이상범 목사
논찬 이송용 선교사</td><td>010-5622-0863
010-5153-3806
010-2802-5724</td><td rowspan="2">정동훈 장로
광주시니어
선교회 회장
010-3646-8291</td></tr>
<tr><td>클로징</td><td>리뷰, 결단
광고, 중보 기도, 광고
폐회 기도</td><td>허종학 장로
느헤미야 선교사
방충헌 장로</td><td>010-4538-1076
010-5496-3714
010-6797-5594</td></tr>
</table>

연락처:

* Matthew Ling 목사 email : matthewling.life@gmail.com
* 박상진 교수 e-mail : sjpark@puts.ac.kr
* 정동훈 장로 e-mail : jdh8291@hanmail.net
* 느헤미야 선교사 e-mail : joseph525@gmail.com
* 허종학 사무총장 e-mail : twc_korea@naver.com

4/14윈도우포럼 후속 서울 워크샵 2018.6.4(월)

가정친화적 교회교육문화 정착방안 특별 워크샵

"차세대교육 패러다임 바꾸기 – 교회가 부모와 가정을 중심에 세워라"

Workshop on Family-friendly Education Culture Taking Root in Church

"Paradigm Shift of Education for Next Generation
- Church's Prioritizing Parents and Family!"

- **일시 : 2018. 6. 4.(월) 09:00-18:00**
- **장소 : 서울 양재동 횃불선교원 온유홀**
- **인원 : 목회자, 다음세대 사역자 중 가정사역 교회 정착화에 헌신할 30명**
- **목적 :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구현토록 훈련 및 제자화하여 지역사회를 섬기게 되도록 지역교회와 협력 체제를 구축**

-> 일방적 도입이 아닌 자발적 니즈를 조성, 구체화할 로드맵 작성

* 주강사 : Matthew Ling 목사
(세계변혁운동 가정챌린지 퍼실리테이터, 세계/아세아복음주의연맹 가정분과장)

* 주최 : 4/14윈도우한국연합

1. 축사 : 김상복 목사 (횃불신대원 챈슬러)
2. Matthew Ling 목사의 강의, 소그룹 토의 및 질의응답
   Guide to Embracing Family Discipleship in the Local Church.
   Building Family Discipleship Culture. 'What'
   Building Family Discipleship Culture. 'How'
   (가정 친화적 교회교육 문화 도입 방법, 교회에서 가정이 소외된 데 따른 현실적 문제, 교회 다음세대 사역의 가정 중심화 니즈, 다음세대를 위한 가정 친화적 교회교육 문화 정착 방안)
3. 사례 발표 -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추천 교회, 할렐루야교회
4. 소그룹 토론 및 발표
   - 4/14윈도우한국연합 내 가정사역팀 형성
   - 향후 2년간의 실천 로드맵 작성
5. 총평 및 기도 : Matthew Ling 목사

Family Challenge Proposal *for* **4/14 Window Korea Workshop**

Pastor Matthew Ling

Background Information: 배경

The 4/14 Window Korea Network has given significant focus to discipleship of the home as one of its key strategi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Family Discipleship strategy'). 4/14한국연합이 가정제자화 전략의 중요성을 인식함

Family Challenge, a part of the Transform World movement, would like to explore how we could contribute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above strategy in the movement. 가정챌린지는 세계변혁운동의 일환으로 가정제자회를 통한 변혁운동의 추진 효과를 기대

The Proposal: 제안

- **Overall goal 목표:** To build the capacity of the 4/14 Window Korea Network to develop the Family Discipleship strategy among the network of churches associated with it. 가정제자화전략 개발능력 함양
- **Plans 계획:**
  - To organise a national leadership team of the 4/14 Window Korea Network to focus on the Family Discipleship strategy. 리더십팀 구성
  - To formulate a strategic plan to implement this strategy. 전략 실행
- **June consultation 6월 워크샵:**
  - Pre-consultation 예비 회의 . To support the formation of the Family Discipleship Leadership Team (FDLT). 리더십팀 형성 지원
  - Consultation 본 회의(워크샵) : To facilitate with the FDLT the formulation of the strategic plan. 전략 계획 수립
  - Schedule 일정계획: The full day of June 4. (6월 4일)
  - Preparation 준비: The team to prepare for the consultation with the needed knowledge. Relevant resources will be provided for this purpose. 사전 지식을 위해 적절한 자료 제공 예정

Our mission is to partner with the local church to inspire and equip families to build God's kingdom and impact their communities for Christ. 우리의 사명은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토록 훈련 및 제자화하여 지역 사회를 섬기게 되도록 지역 교회와 협력하는 데 있음.

환 영 사

이상복 목사
광주동명교회 담임

“한 아이를 제대로 기르려면 온 마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북미 원주민들의 가르침은 본받을 만합니다. 그들은 자녀 교육을 시킬 때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는 두 마리 늑대가 있단다. 착한 늑대와 나쁜 늑대. 그 두 마리는 자주 싸운단다.” “누가 이기는가요?” 자녀가 물으면, “그건 당연히 네가 밥을 많이 주는 쪽이 이기지.” 라고 아버지는 대답합니다.

우리 사회의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주로 세 부류의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학교와 교회, 그리고 가정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현재의 학교 교육은 불행히도 성공주의, 물질주의. 개인주의, 그리고 지나친 경쟁주의로 치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는 고사하고, 부모공경도 스승 존경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들에게는 친구도 이웃도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경외, 부모 공경, 스승 존경, 나아가 선한 이웃이 되는 성경적 가치관을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러나 교회 교육 시간은 학교 교육의 1/20도 되지 않습니다. 거의 일방적입니다. 학교 교육과 교회 교육 사이에 가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자녀의 바른 인격과 신앙교육을 앞장서야 할 가정이 오히려 학교 교육, 세상 교육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의 신앙계승을 위협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비신앙적 세상 교육을 강요하는 그리스도인 부모들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자녀 교육은 부모의 책임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녀의 신앙교육을 최우선시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교회와 협력하여 신실한 인격과 경건의 저력을 갖춘 자녀교육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제는 가정 친화적 교육을 넘어 더 철저하게 가정 주도적 신앙교육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자녀의 신앙과 교육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금번에 저희 교회에서 가정 친화적 교회교육 광주포럼을 열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강의로, 논찬으로, 기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시는 여러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포럼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교육이 가정과 교회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기를 기도하며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최철희 선교사
시니어선교한국 대표

2007년 처음 시니어선교한국이 설립될 당시는 세계선교를 위해 시니어세대를 선교에 동원하자는 목적을 가지고 이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사회는 급변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많은 심각한 문제들을 우리는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시니어선교한국이 발족할 때만 해도 그리 관심을 끌지 않았던 이슈들, 이를테면 국내에 몰려들어오는 이주자 문제라든가, 탈북자들과 통일에 대한 관심, 그리고 한국교회 안의 젊은 세대의 급격한 감소 현상, 특히 교회학교의 급속한 감소 등에 관한 것입니다.

세계선교도 매우 중요하고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맡겨진 사명임에 틀림없지만, 내 집안을 추스르고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한국교회가 세워져야 세계선교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자성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계선교를 위해 일어설 젊은이들은 해가 바뀔 때마다 눈에 띄게 감소하고, 한국교회에 활력소가 되어 미래를 이끌어나갈 젊은이들의 자리가 비어버린 교회의 현실에 우리는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시니어선교한국의 4가지 비전인 해외선교, 국내이주민선교, 북한선교, 다음세대선교, 이 가운데 하나로 채택된 〈다음세대를 위한 선교〉는 이러한 급박한 상황을 인식하는 가운데 세워진 시니어선교한국의 비전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구체적인 선교 방향이나 실천 방안이 모색되지 않아서 기도하며 고심하던 중에, 오늘 이렇게 〈광주전남 시니어선교회〉에서 〈차세대교육 패러다임 바꾸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포럼을 열게 되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 할 시점에 와 있는 줄 압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의 주역으로 자처했던 시니어 세대들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차세대 신앙 교육에 대해 무엇을 놓쳤는지, 깊이 자성하며, 회개하며, 새로운 방향을 제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당면한 과제들을 논하기에 그리 충분한 시간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만, 오랜 식견과 전문성을 가지고 이 분야를 이끌어 오신 Matthew Ling 목사님과 박상진 교수님의 발제와 논찬들을 통해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제 한국교회의 부모들이 다시 깨어나고 가정의 신앙 교육이 다시 세워짐으로 다음 세대 신앙이 대를 이어가는 한국교회가 될 뿐 아니라, 이들의 세대를 통해 세계 선교의 비전이 계속 이어져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Key Note Speech

장순흥 박사
한동대학교 총장
4/14윈도우한국연합 대표회장

안녕하십니까, 장순흥입니다.
오늘 '차세대 교육 패러다임 바꾸기'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가정 친화적 교회 교육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참 반갑습니다.

우리는 인공지능(AI) 시대라고 불리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을 핵심으로 극단적인 자동화를 지향하는 4차 산업혁명은 이미 가전제품 등을 비롯하여 우리 생활 곳곳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서는 인간소외현상 및 극심한 빈부격차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인성 및 영성 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교육에서 하나님이 사라진 시대에 부모 · 가정교육,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등의 사적 교육 영역과 교회, 가정, 부모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는 담장을 넘는 사역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500여 년 전 루터는 만인제사장 정신을 강조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거룩하다 칭함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빛과 소금으로서 이 세상을 밝히고 썩지 않게 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개인의 영적 구원 및 신앙의 성숙을 넘어 만인제사장 정신의 실현과 사회적 구원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직자라고 생각하는 만인제사장 정신을 가짐으로써 말씀을 듣고 지식적인 차원을 부풀리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이를 현장에서, 각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행동에 옮기며 우리가 현재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가정은 자녀들이 다음의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을 깨닫고 늘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늘 기억한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담대하고, 절망하지 않으며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2) 우리 자녀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도록 훈육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말씀을 우리 자녀들이 항상 기억하도록 가정에서 잘 교육해야 할 것입니다. 3) 이웃에게 먼저 주는 사람이 되도록 훈육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받기만을 기다리기보다 내가 먼저 줄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꼭 거창한 것이 아니더라도 이웃에게 먼저 베풀 수 있는 친절, 배려, 미소, 칭찬, 인사 등 우리가 줄 수 있는 작은 것에도 큰 힘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자녀들이 참으로 행복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부모로서, 인생의 선배로서 자녀들의 말을 경청하고 이해할 수 있는 존중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관심과 사랑, 감동을 주고 담대하고 신실하면서도 온유한 모습으로 모범을 보여 주는 어른이 된다면 자녀들이 진심으로 부모를 따르고 자연스럽게 공경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본받고 싶은 매력적인 모델이 됨으로써, 차세대 크리스천을 키워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출세도, 재물도 아닌 바로 복음입니다.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당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한동대학교는 최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다음 세대들이 배움이 즐거움을 깨닫고 유익하고 건전한 토론 및 만남의 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방과후학교에서 건전한 컨텐츠를 공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일학교만으로는 부족한 시간을 활용하여 말씀과 다양한 지식, 지혜를 가르치고 복음 전도의 장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뿐만 아니라 부모교육이 이뤄지는 장으로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자 하오니,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소중한 자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모든 분들과, 다음 세대를 향한 사랑을 품고 함께 하시는 모든 동역자 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구통계학적 선교전략 "다음세대 4/14운동"

선교사 허종학 장로
4/14윈도우한국연합 사무총장
글로벌4/14윈도우운동 아시아리더십팀 의장

1. 다음세대 4/14윈도우운동은 무엇이며 시작된 동기와 배경은?

4/14윈도우는 4살부터 14살까지 10년 삶의 기간을 나타내는 인구통계학적 창입니다. 지리적 개념의 10/40 윈도우를 선교전략으로 제시한 **선교전략 및 동원가 Luis Bush 박사**는 우리 시대 모든 선교를 위한 전략적 노력은 세상을 변화시킬 4/14 살 아이들을 새롭게 세우는 것이어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분과 **다음세대 사역에 앞장서 오신 뉴욕프라미스교회 김남수 목사**께서는 서로 합력하여 이 운동을 세계적으로 일으키기로 하고 **2009. 9월 뉴욕에서 4/14윈도우운동을 출범시켰습니다. 4/14윈도우는 총체적 변혁선교의 핵심 중의 핵심이며 10/40창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4/14윈도우라도 말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운동은 4~14살 중심의 다음세대를 일으켜 세상을 변화시킬 변혁의 일꾼으로 세우자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의 중요성은 1) 성경적 관점으로 어린이 청소년이 나라와 사회 및 가정을 구원하는 데 귀하게 사용된 성경의 기록들이 많고, 2) 4-14살 또래가 복음수용성이 가장 높은 시기(미국 성인 크리스천의 경우 85%가 15세 전에 주님을 영접)이며, 순수한 그들을 오늘날도 하나님이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위해, 또 복음전파를 위해 사용되는 많은 사례가 많이 있으며, 3) 교회가 양적, 질적으로 위축된 가운데, 교회 학교의 상황을 보면 기독교는 지금 분명 위기에 처했는데, 바로 이 때 다음세대를 잃으면 다 잃게 되기 때문에 다음세대의 중요성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며, 4) 하나님이

가장 적절하게 디자인해 놓으신 왕성한 두뇌발달 단계는 4/14윈도우와 거의 일치하므로 이 시기에 성경적 세계관을 형성해 주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5) 세계적으로 다음세대 20억명 중 10억명이 인신매매, 고아, 전쟁, 질병 등 사회적 신체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으며, 6) 오늘날 미디어와 가정이 다음세대를 중간에 두고 줄다리기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다음세대 4/14윈도우운동의 세계적 현황

2009년 이래 4/14윈도우 글로벌 모임이 거의 매년 열려 왔고 (뉴욕, 서울, 싱가포르, 방콕, 발리 등), 세계적으로 50여국이 이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자국 내의 다음세대를 깨우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소위 **Global South 의 교회 부흥과 궤를 같이 하고 있어서 라틴아메리카와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등에서 교회 부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와 유럽에서도 활발하게 추진 중입니다.** 최근 2018.3.14-16 싱가포르에서 65개국에서 온 920여명의 사역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6회 4/14윈도우 써밋이 열려 다음세대 사역 모범 사례와 중요 다음세대 선교단체들의 사역 소개가 열렸습니다.

3. 한국에서의 4/14윈도우운동 현황

2009년도 뉴욕 글로벌 서밋 이후 한국이 개별 국가로서는 가장 먼저 반응하면서 2010년도에 변혁한국(당시 의장 김상복; 분당소재 할렐루야교회 담임목사)과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가 함께 4/14윈도우 글로벌 컨퍼런스를 개최하였습니다. 한기총 같은 중앙 조직이 움직인 것이 아닌 변방에서 낸 목소리였지만, 여기에서 불을 넘겨받아 세계 곳곳에 운동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때 **4/14윈도우 한국기독어린이헌장**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듬해인 2011년도 제1회 4/14윈도우포럼에서는 매년 4월 14일을 **'4/14 Day'**로 제정, 선포하였습니다. 이 일은 다음세대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상징적인 일이었고, 2012년 제2회 포럼에서 어린이선교단체, 교회의 어린이 청소년 사역자, 교육 전문가들이 함께 지혜를 모으며 기존 교단들과 개 교회들이

다루기 힘든 **한국 어린이 청소년의 벼랑 끝 위기**에 대해 공개적으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시의 적절했다고 봅니다. 이를 계기로 다음세대가 처한 위기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 해법을 논의을 더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2012년 동아시아 포럼 등을 열어 세계와 국내의 다음세대 사역자들이 함께 동참해 왔습니다. 최근 2014년도에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다음세대를"** 및 **"크리스마스 파티전도"**라는 주제로 두 번의 포럼을 개최하였고, 2015년도에는 **"교회 학교 부흥을 말한다!"** 주제의 포럼을, 2016년도에는 **"다음세대와 미디어 – 선용방법 제시"** 주제의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2017.4.10-11일에는**"교회의 가정 세우기 – 성경적 학부모 모델링을 위하여"** 주제의 포럼을, 2017.12.1.일에는 **"교회의 다음세대 교육 패러다임 바꾸기 – 부모와 가정을 중심에 세워라!"** 주제의 포럼을 서초동 사랑의교회 아트홀에서 각각 개최했습니다.

참고로 변혁한국은 2012년. 4월에 **4/14윈도우한국연합을 출범시켜, 여러 선교 단체, 교회들이 연합하여 이 사역에 함께해 오고 있습니다.**

(4.14윈도우한국연합 대표회장: 장순흥 한동대 총장)

4/14 Window Day To Change the World

4/14 Window Global Initiative

4월 14일을 차세대 지도자를 위한 금식기도의 날로 지킵시다!
세상을 변혁시킬 어린이 청소년에게 희망을 거는 "4/14윈도우의 날"에...

4/14 Window의 비전은 4세에서 14세 연령층의 성장 과정을 지속적이고 총체적으로 돕고 격려함으로 그들이 세상을 변혁시키는 차세대 지도자로 일으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4/14 세대를 위한 금식기도의 성경적인 배경은 에스더 4장 14~17절입니다. 에스더가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 앞에서 살리기 위하여 삼촌 모르드개와 함께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였듯이, 4/14 세대를 위해 이와 같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 "4/14윈도우의 날" 제정을 선언합니다.

이 날, 곧 1끼 이상 금식하며 기도할 "4/14윈도우의 날"의 제정을 선언합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4/14 세대를 위한 목적이 있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매년 4월 14일은 '변혁 4/14윈도우의 날'로 지키며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첫째, 에스더의 금식기도처럼 하나님께서 사단의 영향력으로부터 4/14 세대들을 보호하시도록 기도합니다.

둘째, 4/14 세대들이 속한, 그리고 미래에 속할 가정, 교회, 비즈니스, 정부 등 사회의 각 영역(Seven Mountains: 7M)에서 변혁의 일꾼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셋째, 크리스천 가정들이 자녀를 많이 낳아 성경적 세계관으로 잘 키우도록 기도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부흥과 속한 사회 7M 중 각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변혁의 일꾼 확보와 선교자원의 확보를 주님 오실 때까지 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넷째, 가정과 교회와 학교에서 어린이 청소년들을 사회 모든 영역의 차세대 지도자로 키우는 것을 최우선의 하나로 최선을 노력을 강구합니다. 순수한 그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선교에 있어서 교육선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나라 4/14 세대뿐만 아니라 열방의 4/14 세대가 우리와 동일하게 신령한 복을 누리고, 주안에서 온전하여질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이 조성되도록 간구합니다.

2011.4.14일 제1회 변혁 4/14윈도우포럼 참석자 일동

제10회 4/14윈도우포럼 비전선언문

10th 4/14 Window Forum Vision Statement

subsequent to 10th 4/14 Window Forum, Korea

주제 : 교회의 가정 세우기

Topic : Family Building Ministry in the Church

- 부제 : 성경적 학부모 모델링을 위하여
  Subtopic : Toward Biblical Parental Modeling

- 우리는 오늘날 한국 교회의 위기가 신앙의 대 잇기 실패에 기인하였음을 인정한다.
  We acknowledge that our failure to raise up the next generation of believers has contributed to the crisis in the Korean church today.

-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고 양육하기 위해 교회와 가정의 연계가 필요함을 인식한다.
  We recognize that the church and the family must work together in order to save and nurture our children.

- 우리는 어릴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도우며 그들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자라도록 가르치는 일이 더 이상 이론에만 그치지 않고 실천되어야 함을 믿는다.
  We believe that training our children in the ways of the Lord must start early, and that the teaching of biblical world view must be practical in nature, not just theoretical.

- 우리는 다음세대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이 가장 중요함을 인정한다. 하나님께서 부모가 예수님을 따르는 좋은 모델이 되어 자녀들을 이끌어 주기를 원하신다고

믿는다.

We acknowledge that the parental role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nurturing our next generation. We believe God wants parents to be children's role models in the ways of following Christ.

- 우리는 크리스천 부모, 조부모로서 우리의 자손에게 성경적 모범을 행함과 말씀으로 가르치기를 결단한다. 우리는 삶의 패턴의 우선적 순위를 가정에 두고 영적, 정서적 자녀 양육의 시간을 확보하며 부부간의 친밀함과 가정의 안정을 이룰 것을 결단한다.

We, the Christian parents and grandparents, declare that we will model biblical values to our offspring through action and words. We will make family our priority, as we make time to nurture emotional health in our children, to foster intimacy in our relationship with our spouses, and to create a sense of security in our home.

- 우리는 교회의 다음세대 교육 시스템이 교회학교 교사 중심에 머물러 있고 가정의 중요성이 강조되지 않았음을 인정하며 이제는 가정이 중심이 되고 교회가 지원하는 어린이 청소년 사역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믿는다. 즉, 부모가 주인의식을 갖고 자녀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교회가 지원하여 교회학교 교사 및 부모가 시너지를 이룰 수 있어야 하며 모든 교회는 가정에서의 제자 양육 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 제자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교회들이 이러한 변화를 이루기 위하여 그 콘텐츠를 연구, 개발하고 모범사례를 발굴하며, 실제적인 지침을 제시하며 부모, 조부모들을 훈련시킬 것을 제안한다.

We acknowledge that there is a need for the church to emphasize the family's role in rearing up the children and believe that the children and youth ministry should be shifted to home-centered, church-supported one. So, the church will need to help the parents to own this ministry and to develop a discipleship program that will have the church and family working in concert for our young. In addition to creating the contents of the discipleship program, the church will also need to develop a working model that will practically equip the parents and grandparents toward this cause.

- 우리는 다음세대 교육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야 함에 동의한다. 이에 교회와 가정은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기도와 섬김에 힘써야 한다. 아울러, 기독교 학교 교육과 홈스쿨링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 방법인 것을 인정한다.

We agree that the Kingdom of God must advance through the sphere of education. Therefore it is incumbent that churches and families intercede and contribute for the cause of public education. But we also agree that private Christian schools and home schooling are solid alternate options.

- 우리는 한국 교회에 본 비전 선언문과 관련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전달하고, 필요시 더 연구하여 보고하기로 한다.

We agree to deliver this Vision Declaration and the related materials to churches in Korea, and as the needs rise we will make further studies and reports.

2017년 4월 11일
April 11, 2017

4/14윈도우한국연합 (대표회장 장순흥)
및 제10회 4/14윈도우포럼 참가자 일동

4/14 Window Korea Network (Representative Chair Soon Heung Chang)
and all the participants in the 10th 4/14 Window Forum, Korea



Family Discipleship: The Church and The Home

Rev. Matthew Ling
(Family Challenge Facilitator, Transform World Movement)

A. Introduction

It is indeed a great honour to be invited to serve with so many esteemed church leaders at this Forum.

With the title 'Family Discipleship: The Church and The Home', the main focus of my presentation is on 'what' Family Discipleship is and 'how' a church could cultivate this as a culture in the church body and in the home.

B. The Family

1. God's Key Strategy

Family is God's idea and He created it. Genesis 1:26-28.

The creation of the family was intentional as a key part of God's plan on earth. It was a strategic move; to involve the family in building His kingdom here. God told Adam and Eve in Genesis 1:28, 'Be fruitful and increase in number; fill the earth and subdue it.

Rule over the fish of the sea and the birds of the air and over every living creature that moves on the ground.' The first couple (the first family) was called to start ruling the earth on behalf of God.

2. Family Discipleship: The Success Factor

a. Discipleship

Following salvation, comes sanctification of life in Christ. The latter is achieved through the discipleship process. The Great Commission call of Jesus Christ points the church to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20 and teaching them to obey everything I have commanded you...' Matthew 28:19-12).

Discipleship – equipping to follow Christ – is a critical key in building God's kingdom.

b. Disciple-making at Home

What we commonly understand by 'discipleship' deals with training in the areas of prayer, Word, worship, community living, etc., which mostly takes place in the corporate church setting.

Discipleship efforts in the church rarely go further than these to include training the family members on how they should live as Christians at home.

When God called Abraham to establish a great nation for Him, He called Abraham not only to lead the whole nation according to His will, but also to make sure that he discipled his own family well. Genesis 18:19 says, 'For I have chosen him, so that he will direct his children and his household after him to keep the way of the LORD by doing what is right and just, so that the LORD will bring about for Abraham what he has promised him.'

To God, what took place in Abraham's home in discipleship was no less important than what the whole nation did as a community for the success of nation-building.

One's love relationship with God does not automatically 'jump' from one person (of faith) to another person just because they stay together. Deliberate efforts (discipleship) are needed for this to take place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Abraham was directed by God to disciple his household to ensure that the faith he had himself would be imparted to them.

Another example when emphasis of family discipleship is given such prominence is when Moses gathered the nation of Israel together on the plain of Moab, east of the Jordan River, ready to enter the Promised Land.

The people were excited about the prospect of the promised great blessings awaiting them across the river. God knew the propensity of His people to stray from His path, especially when

they enjoyed the prosperity of the land. He knew the necessity to prepare the people well for their next phase of life.

The book of Deuteronomy consists mainly of the voice of God to His people through the three recorded speeches of Moses. In the first speech and the first part of the second speech, God addressed the whole nation; reminding them of how He had faithfully led them through all those years in the wilderness and the commandments, decrees, and the laws they need to obey when they enter the Promised Land. The focus was on corporate living.

Then, in the midst of the second speech, God drew the attention of the people away from the community to what was supposed to take place in the home. This was explained in Deuteronomy 6:4-9 and 11:18-20. It was not enough for the people to conduct themselves well as a community to enjoy the prosperity of the new land, but the homes must live according to the specific ways of the Lord as well. Family discipleship must take place in every home for the home and the whole community to prosper there.

The 'family factor' was a critical success factor in the building of a new nation in the Promised Land. It would be at their own peril if the people were to simply ignore this. That's why Joshua, in his parting speech to the nation that he had led over several decades, reminded them that in order to secure a great future, they must also commit to keep their families strong in faith in Jehovah God as he declared, '…as for me and my household, we

will serve the LORD' (Joshua 24:15).

Family discipleship is not just an Old Testament idea of God. It remains a key component of the corporate discipleship structure of the New Testament church.

We see this in many places of the New Testament. Here, we shall single out Ephesians 5:21-6:4, the 'household code' passage, to explain the nature of family discipleship that we should aim for.

The book of Ephesians is divided into two main parts of three chapters each. The doctrinal part is the first three chapters. It tells us what we, the believers, are in Christ. The last three chapters deal with how we should live as Christians.

Like Moses in the book of Deuteronomy, the Apostle Paul, in the midst of addressing the church (Ephesians 4:1-5:20), turns the attention of the church to the issue of how the members of the corporate church should live at home (Ephesians 5:21-6:9). There are specific ways that God lays down for each Christian to live in the family through discipleship.

C. Observations and Conclusions

There are valuable observations we can make and conclusions we can draw from the preceding scriptural passages.

1. Parent as Disciple-maker

God has equipped the home adequately and specifically for the tasks assigned to it (Deuteronomy 6:6-9 and Ephesians 4:7, 11-12).

The church has worked hard over the years to disciple its members. In the case of the faith-building of the children and youths, the prevailing discipleship structure of children and youth ministries (carried out in the church settings) is generally effective in the following areas:

- Head knowledge. The main function is the transfer of information.
- Conviction of heart. The impact of the ministry is on the heart condition, but it is short-lived.

Currently, the 'hand' (living it out) part of the discipleship structure is generally lacking. This part of the discipleship process is outside the realm of the corporate church, but in the realm of the home.

God has provided each parent three things for the task faith formation of the next generation.

- **Love relationships.** God deposits in the heart of the parent the kind of love that comes very close to the agape love of God for their children; sacrificial, unconditional, and unilateral. This is evidenced by how much a parent would normally do for his/her own child.

  It takes this special kind of love from God, in them, for the parent to do what God requires of him for the child as instructed in the Bible (Deuteronomy 6:4-9, Ephesians 6:4, Proverbs 22:6, etc.). Also, the love and respect that a child

develops for the parent make him that much more receptive to the guidance of the parent more than anyone else.

- **Proximity.** No one has as many opportunities as the parent to guide the child through life, due mainly to physical proximity; not church leaders. A parent usually knows what is happening to the child well before anyone else outside the home - including church people - picks this up.
- **Teachable moments.** Because of proximity, the parent is positioned to seize moments in daily living to disciple the child. God points this out in Deuteronomy 6:7-9, '*...Talk about them when you sit at home and when you walk along the road, when you lie down and when you get up. 8 Tie them as symbols on your hands and bind them on your foreheads. 9 Write them on the doorframes of your houses and on your gates.*' There are many teachable moments in the home setting that God gives to the parent for discipling his child in faith.

Tragically, the parents, positioned by God to train the child, are often not equipped and commissioned by the church to carry this out.

The result - the child in the Sunday School or youth group grows in head knowledge of the truths but not able to live a life of these truths due to the lack of opportunities and supports to practise them in daily living.

Parents are the primary faith shapers of their children. We need to recognise them for this role and equip them to function as such.

2. Church as Family

Family discipleship, as we learned in the preceding scriptural passages, took place not in isolation (not just in the individual family units only) but in the community of God's people.

For instance, the 'household code' passage of Ephesians 5:21-6:4 gives instructions to Christians on how they should live at home in the midst of the local church family; church as a larger family.

The whole community of believers (church family) is called to nurture each other in the faith development journey.

The church is called '...to equip the saints for the work of ministry, ...' (Ephesians 4:12); equipping parents and grandparents to live God's ways at home.

3. Church-home Partnership

Family discipleship requires trained 'disciplers'. There are two groups of disciplers in the church context; the parents and those in the church who are to be equipped to train the parents.

The church, with its pool of gifted people, is to equip the family members 'for work of ministry' at home. In the Sunday School and youth ministry, the main functions of the ministry leaders ('disciplers') are to teach and challenge the children and youth to live out the truths. After that, the home would take over to train the children on how to translate the head and heart knowledge into life.

The church has been very much on their own, pouring much efforts into the discipleship of the children of members without the adequate involvement of their parents.

The corporate church is investing substantially in trying to make disciples of the next generation - on their own. As much as they try to do so, they just cannot achieve the total discipleship goal.

Every church wants to grow strong. But they just cannot do it alone without the home. Attempts to build up the corporate church without building the home is like a bird trying to soar with one wing (the church) flapping away furiously and the other wing (the home) limping along, weighing it down. The church is just not able to reach its maximum height without building the strength of the home wing.

God has designed the church and the home to function in compliment of each other as complementary partners; the church as the family-equipping centre and the parent as the primary faith shaper of their children.

4. Holistic Discipleship

Although the Bible does not prescribe a specific 'model family' for us to emulate, there are scriptural passages both in the Old and New Testaments that can guide us in ascertaining the kind of family God calls us to build in His Church.

For instance, three New Testament letters (Colossians 3:18-4:1; Ephesians 5:21-6:9; and 1 Peter 2:18-3:7) lay down specific

relationships and obligations (commonly referred to as the 'household code') that each Christian family should focus on in their discipleship.

From the Ephesians passage, we see that there are six areas of Christian family living that we need to disciple the family in.

Using the analogy of a building, we shall refer to these areas as 'pillars'.

1. Faith formation
2. Marriage
3. Parenting
4. Home leadership
5. Human sexuality
6. Aging care

Other scriptures (supported by social science findings) point to 4 more key areas that we believe we need to give attention to in building the healthy home.

7. Non-nuclear family. This refers to types of family other than that which consists of father and mother with or without children. They include single-parent family, extended family, etc.
8. Family resource management. This covers finance, work-life balance, and other resources that the family has to manage.

9. Missional. This is about the family being the salt and the light to the unsaved.
10. Prayer and intercession. The Christian family is in intense spiritual warfare. We need to equip the family for this and rally the church body to provide the needed supports.

Christian family members do not naturally obey and live out God's ways of living in the family in those 'pillar' areas listed above. They have to be trained (in knowledge, skills and attitudes) to do this.

Someone needs to take up this responsibility; to disciple us.

God created the institution of the local church to worship God, teach biblical doctrine (2 Tim. 4:1), guard the church from false doctrine (Titus 2:1, 15), disciple believers (1 Timothy 4), care for believers (Acts 4:34, 1 Timothy 5, James 1:27, James 2:15), and equip them for works of ministry in their homes, in their communities, and into the world. (Ephesians 4:12).

The church is the family-training centre fulfilling a part of the Great Commission mandate to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20 and teaching them to obey everything I have commanded you....' Matthew 28:19-12).

Corporate discipleship structure is incomplete with just the church-based discipleship process - family discipleship should be an integral part of it.

D. Definitions of Family Discipleship

Let us look at a definition of family discipleship for the parents provided by Dr. Timothy Paul Jones of the Southern Baptist Seminary, a key proponent of this concept.

'...**leading your family to participate in the life of a Triune God through Jesus Christ, resulting in growth in the knowledge of God's Word and in the imitation of God's way through the power of God's Spirit.**'

In brief, discipleship at home focuses on training the family members in God's Word and living according to it.

Another definition (by Dr. Timothy Paul Jones) of what it means to disciple the home from a church's perspective is:

The process of coordinating a church's practices so that all members develop diverse discipling relationships and so that parents are acknowledged, equipped, and held accountable as primary disciple-makers in their children's lives.

In substance, this definition points us to the following tasks.

a. Developing the church leadership and congregation with the capacity to equip the home for family discipleship.

b. Developing the family with the capacity to ensure that discipleship takes place effectively.

E. Developing the Culture

1. The Process

When we talk about 'how' to go about making family discipleship as an integral part of the church life, we focus on the process of changing the culture of the church from where it is to where it should be in family discipleship as defined above.

An important issue that many church leaders might overlook in their haste to bring changes in building the family discipleship culture in the church body is the process involved in making such changes.

The changes we are talking about in the leadership, congregation, and the home - in order to bring about the desired family discipleship culture - are major in nature.

At the leadership level, the changes involve incorporating family discipleship as a key part of the overall discipleship structure of the church. The process may include the following:

- The whole leadership has to buy into this shift.
- Resources (human and others) need to be allocated for this.
- Programmes of the church need to be reorganised.

For the congregation, the following may need to take place:

- Paradigm shift to give focus to family discipleship.
- Volunteers to be equipped and positioned to serve.

In the home, the changes include the following:

- Family members need to avail themselves of the equipping programmes.
- The parents would need to take up responsibilities to mentor their children spiritually.

It takes time and resources with a well-planned process to cultivate the family discipleship culture. There are just no short-cuts and quick fixes.

We can expect great resistance to changes and this resistance needs to be overcome for the plan to work.

For this, we need a well-thought-through plan for the process to succeed.

We need to formulate a culture-change process specific to a church in order to succeed in cultivating the family discipleship culture.

Again, we cannot overemphasise the importance of paying great attention to the 'process' involved.

2. Key Considerations

Now, let us turn our attention to this process of culture change. There are three key areas we need to consider in implementing the process.

1. The stakeholders.
2. The church and home cultures.
3. The culture-change process itself.

a. Stakeholders

Who are the key players in the process?

What groups of people in the church will be affected and involved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the family discipleship culture?' The answer is the 'church leadership, congregation, and the family'.

b. The Culture Factor

The second area concerns the culture of the church; its way of life.

The church culture is the result of the beliefs and values shared by the church community and how they live out these beliefs and values together.

The culture in any church consists of two main parts; the visible one and the invisible one.

The visible part is what we can see taking place – the ways we do things; our behaviours and the environment that these take place in.

The part that we do not see, but yet powerful, are the values, attitudes, beliefs, and assumptions that a church community embraces.

Our ultimate goal of the change process is having family discipleship as a culture (related belief, value and life) in our corporate church.

To cultivate this culture of family discipleship requires shifts in the beliefs and values shared by the three stakeholders, resulting in church and home life expressions consistent with these beliefs and values.

c. The Culture-Change Process

The change process consists of three phases.

1. Preparing for culture shifts within the church and the home.
2. Making the actual culture shifts.
3. Establishing the new family and church cultures.

These three phases are illustrated here based on John Kotter's model of change management.

In more details, the process is shown in the diagram.

Steps 1 to 4 deal with our preparation to change.

- The first step is on preparing the church and the home to make the culture shift by raising the alarm on the critical need for family discipleship among the 3 stakeholders. One key strategy is to present the theology of family discipleship to the stakeholders. Another is to present research findings to back up our persuasions. We hope these, and other strategies, would result in a conviction intense enough for the church leadership (with the congregation) to take the appropriate actions.

- Formation of a leadership dedicated to the culture-change process comes next.
- Third, it involves the formulation of mission, vision, strategies, objectives, and plans.
- Step 4 consists of communications of vision and mission to the congregation and the families to secure buy-ins from these stakeholders. A powerful step forward in this direction is the leaders modelling changes in their own lives in the area of family discipleship.

Steps 5 & 6 are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hanges.

- Step 5 consists mainly of removal of obstacles to change and the implementation of culture change plans.
- The next step is to monitor the progress and celebrate achievements at predetermined incremental milestones of the process.

Steps 7 & 8 are on making sure that the changes are sustained and established solidly in the long run.

- Once the plan is under way, use achievement milestones to build further momentum and to change any systems, structures, and policies that are obstructing further progress.
- The last step is to implement appropriate strategies such that all changes are implemented and the new culture (family discipleship) is sustained and increasingly becoming a way of life in the church.

【제1강】

가족 제자화의 필요성 - 교회와 가정의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Family Discipleship: The Church and The Home

Rev. Matthew Ling (세계변혁운동 가정 챌린지 퍼실리테이터)

A. 인사말

이번 포럼에 초대받아 존경하는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섬기는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가정의 제자화 - 교회와 가정' 이라는 주제는 가정의 제자화란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는 이것을 어떻게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하나의 문화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B. 가정

1. 하나님의 핵심 전략

가정은 하나님이 생각해 내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창세기 1:26-28).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실 때 뜻이 있으셔서 그분의 계획대로 가정을 창조하였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데 가정을 포함하는 것은 하나님의 중요한 전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8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 첫 번째 부부(가정)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명을 처음 받은 것입니다.

2. 가정의 제자화: 성공 요인

a. 제자가 된다는 것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를 시작합니다. 성화는 제자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태복음 28:19-20)는 것이었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준비가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결정적인 열쇠입니다.

b. 가정에서 제자 만들기

우리는 보통 제자 훈련이란 기도, 말씀, 예배, 공동체 생활 등에 대해 훈련 받는 것으로,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하는 훈련을 생각합니다.

교회의 제자훈련이 이러한 틀을 넘어 성도들이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훈련하는 교회는 매우 드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라고 명령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 민족을 이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족들 또한 확실하게 제자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8:19에서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브라함의 가정이 제자화되는 모습이 민족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로 훌륭한 나라를 이루는 것만큼이나 중요했습니다.

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과 갖는 사랑의 관계는 그와 함께 사는 가족이라고 해서 저절로 옮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세대를 건너 이어지려면 반드시 의지적인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족들을 제자로 만들어 그 믿음을 확실하게 전하라 명하셨습니다.

가족의 제자훈련을 강조한 또 하나의 예는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 동쪽 모압 평야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았을 때였습니다.

사람들은 강 건너편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놀라운 약속의 축복을 기대하며 매우 들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축복을 마음껏 누릴 때에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날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삶의 다음 단계를 맞이할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신명기에서 모세는 세 번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그의 백성들에게 들려줍니다. 첫번째 설교와 두번째 설교의 첫 부분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낸 모든 세월 동안 어떻게 신실하게 인도하셨는지를 상기시켜 주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 지켜야 할 하나님이 주신 계명, 율법, 규례들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 초점은 공동체의 삶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두번째 설교의 중간 부분에서 하나님은 백성의 관심을 전체 공동체에서 옮겨 가정에서 지켜야 할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6:4-9과 11:18-20에서 이것을 설명하십니다.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는 공동체로 잘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가정이 또한 주님의 특별한 법도에 맞추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가정과 공동체가 약속의 땅에서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족들 모두가 제자가 되는 훈련과정이 가정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데 매우 중요한 성공 요소였습니다. 이것을 무시하면 매우 중대한 위험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백성을 수십 년 이끈 후에 고별 설교에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여호수아 24:15)라고 선언하면서 백성들에게 위대한 미래를 보장받으려면

가족들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지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가정을 제자화 하는 하나님의 뜻은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시대 교회에서도 공동체 제자훈련이 중요한 요소로 이어졌습니다.

신약성경 많은 곳에서 이것을 볼 수 있지만 여기서는 가정의 제자화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하여 에베소서 5:21-6:4의 '가족 규범'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각 부문은 세 개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 세 장은 교리 중심의 내용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누구인가 말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장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루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모세처럼 사도 바울도 교회에게 설교하면서 (에베소서 4:1-20) 교인들이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지에 대해 교회가 관심을 갖게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5:21-6:9).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구체적인 방법을 가지고 제자화 과정을 통해 가정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C. 관찰과 결론

귀중한 관찰 내용과 앞에 인용된 성경구절을 가지고 정리해 봅니다.

1. 부모는 훈련자이다

하나님은 가정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적절하고 구체적으로 가정을 준비시킵니다(신명기 6:6-9, 에베소서 4:7, 11-12).

교회는 오랫동안 성도들의 제자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대상 신앙교육의 경우, 교회 안에서 보편적으로 시행되어 온 제자훈련 체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대체로 효과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머리(head)로 아는 지식. 주로 정보의 전달입니다.

- 마음(heart)의 확신. 사역 임팩트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다르며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현재 제자 훈련에서 손(hand)에 해당하는 부분(실천하는 믿음)은 대체로 부족한 편입니다. 제자훈련 과정에서 이 부분은 교회 영역 밖이며 가정 영역에 속합니다.

하나님은 다음 세대의 믿음 형성 과제를 위해 부모들에게 세 가지를 공급해 주십니다.

- **사랑의 관계.**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향한 아가페 사랑과 비슷한 사랑을 부모의 심령 속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희생적이며 조건 없는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기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푸는 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명령을 행하려면 하나님의 이러한 특별한 사랑을 품어야 합니다(신명기 6:4-9, 에베소서 6:4, 잠언 22:6 등). 또한 자녀가 부모에 대해 가지게 되는 사랑과 존경심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보다 부모의 가르침에 더 순종하게 합니다.

- **근접성.** 아무도 부모만큼 평생 자녀를 인도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데 그것은 물리적 근접성 때문입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닙니다. 대개 부모는 교회를 포함해서 가정 밖의 어느 누구보다 훨씬 먼저 자기 자녀에게 생기는 일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 **가르칠 수 있는 순간.** 근접성 때문에 부모들은 일상생활 가운데 자녀를 훈련시킬 수 있는 순간을 포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6:7-9에서 이 점을 말씀하십니다.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 지니라'. 가정 안에는 믿

음으로 자녀를 훈련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부모에게 일러주시는 많은 가르침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가슴 아픈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를 훈련하라고 책임을 받은 부모들이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교회로부터 교육을 받지도, 책임을 부여받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교회 학교 어린이 청소년들은 진리에 대해 머리로 아는 지식만 늘어가고 영적 진리를 매일의 생활에서 실습하는 기회와 부모의 지지가 부족하여 이 진리를 따라 살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신앙 형성에서 첫 번째 책임자입니다. 우리는 부모들이 이 역할을 인지하고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무장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가족으로서의 교회

가정의 제자화는 앞의 성경 말씀에서 배웠듯이 개별 가정에서 동떨어져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에서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에베소서 5:21-6:4의 '가정 규범 (household code)'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지역 교회 가족 즉 대가족으로서의 교회 내의 가정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앙인들 전체 공동체(교회 가족)는 신앙생활의 여정에서 서로를 양육하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교회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즉 교회는 부모와 조부모들을 무장시켜 그들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도를 따라 살게 하라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3. 교회와 가정은 동반자

가족 제자훈련을 위해서는 숙련된 훈련자들을 필요로 합니다. 교회에는 두 그룹의 훈련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부모들과 부모들을 훈련시켜야 할 훈련자들입니다.

교회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동원해서 가족 구성원들이 가정에서 사역자로서의 일을 감당하도록 무장시켜야 합니다. 교회 학교와 청년 사역에서 사역 지도자(훈련자)들의 주된 기능은 어린이 청소년들이 진리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머리와 가슴으로 배운 지식을 생활에 적용하도록 훈련시켜야 합니다. 교회는 나름대로 자녀들의 제자 훈련에 많은 노력을 해 왔으나 그들의 부모들은 적절한 관여가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규모 있는 교회는 나름대로 다음 세대를 제자화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만 나서서 애쓴다고 종합적 제자 훈련의 목표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어느 교회나 힘 있게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가정이 나서지 않으면 교회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가정을 세우지 않고 교회를 세우려는 것은 마치 새가 한 날개로 열심히 날아오르려 하나 다른 날개가 축 처져 결국 추락하는 모양과 같습니다. 교회는 가정이라는 날개의 힘을 기르지 않고는 최대의 높이에 오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가정을 동반자로 서로 보완하면서 기능하도록 지으셨습니다. 교회는 가정을 무장하는 센터로, 부모는 자녀의 신앙을 형성하는 첫번째 책임자로 지으셨습니다.

4. 전인적 제자 훈련

성경은 우리가 닮아야 할 특별한 '모범 가정(model family)'을 제시하지는 않지만 구약과 신약 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 안에 세우라고 하신 가정에 대해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세 서신서 (골로새서 3:18-4:1; 에베소서 5:21-6:9; 베드로전서 2:18-3:7)는 모든 크리스천 가정이 제자 훈련에서 갖추어야 할 특별한 관계들과 의무들을 열거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생활의 6개의 영역에서 훈련을 받아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건축에 비유하여 이 영역들을 기둥이라 부르겠습니다.

1) 신앙의 형성

2) 결혼

3) 부모의 역할

4) 가정의 리더십

5) 성에 대한 인식

6) 노후 돌봄

사회 과학상 인정받고 있는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데 다음 4가지 영역이 있다고 합니다.

7) 비 핵가족. 이는 부, 모, 자녀(또는 무자녀)로 이루어진 소위 핵가족이 아닌 가족 개념을 말합니다. 편부 또는 편모 가족, 대가족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8) 자원 관리. 재정, 일과 삶의 균형, 가족이 관리해야 하는 다른 자원을 말합니다.

9) 선교 사명. 믿지 않는 자에 대해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입니다.

10) 기도와 중보. 크리스천 가정은 집중적인 영적 전쟁의 처하게 됩니다. 우리는 가족들이 이에 대비하도록 해야 하고 몸된 교회가 필요한 지원을 해 주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크리스천 가정으로서 위 10가지 기둥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는 습관을 자연스럽게 형성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가족이 훈련을 받아 지식, 기술, 태도를 갖추어야 됩니다.

우리를 훈련시키는 누군가가 나서서 이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개 교회를 만드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경적 교리를 가르치고(디모데후서 4:1), 거짓 교리에서 교회를 보호하고(디도서 2:1. 15), 성도를 훈련하고(디모데전서 4장), 성도를 돌보고(사도행전 4:34, 디모데전서 5장, 야고보서 1:27, 2:15), 성도를 훈련하여 가정과 이웃과 세상에서 사역을 할 수 있게 하라 하셨습니다.

교회는 가정훈련 센터가 되어 선교의 대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이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 19-20).

연합체로서의 제자화 구조는 교회 기반 훈련만으로는 불완전합니다. 반드시 가정의 제자화가 핵심임이 인식되어야 합니다.

D. 가정의 제자화 - 정의

미국 남침례신학교(Southern Baptist Seminary)의 티모시 폴 존스 박사는 부모를 위한 가족제자화에 대한 정의를 하였는데 핵심적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을 인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삶에 동참하고, 그 결과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식에 자라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가정에서의 제자화는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훈련받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티모시 폴 존스 박사는 교회의 관점에서 가족들을 훈련하는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교회의 관행을 발전적으로 조율하여 모든 성도에게 다양한 제자훈련 관계성을 개발시켜서, 결과적으로 부모가 훈련자로 인식되고, 교육 훈련을 받고, 그들 자녀의 삶에 있어서 첫번째 제자 양육자로서의 책임감을 갖게 하는 것이다.

위의 정의에 따르면 우리에게는 다음과 같은 책무가 주어지게 됩니다.

a) 각 가정에서 가족의 제자화를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의 지도자와 성도들이 책임감을 동반한 능력을 개발해야 합니다.

b) 또한 가정에서 제자화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능력을 갖추게 가정을 도와야 합니다.

E. 문화의 개발

1) 개발 과정

교회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라는 측면에서 제자화의 방법에 대해 언급하자면, 현재 우리의 실상으로부터 위에서 정의한 바 가족제자화가 되어야 할 목표를 달성하기까지의 교회 문화 변혁 과정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가족 제자화 문화를 몸된 교회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서둘러 변화를 이루어 내려 하는 중 간과하기 쉬운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변화를 이끌어 내는 과정이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 제자화 문화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지도자들, 성도들, 그리고 가족들에게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지도층이 변화해야 할 부분은 가족 제자화가 교회의 전체적 제자화 구조의 핵심으로 이해하고 틀을 만드는 것이며 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모든 지도자들이 변화에 동참해야 합니다.
- 인적 자원을 포함한 필요 자원 모두를 가족 제자화를 위해 투입하여야 합니다.
- 교회의 프로그램을 재구축하여야 합니다.

회중에게 일어나야 할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가족 제자화에 초점을 맞추는 패러다임 변화.
- 자원봉사자들의 섬김 훈련과 배치.

가정에서는 다음의 변화 등이 일어나야 합니다. :

- 가족들이 시간을 내 제자화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부모들은 자녀들의 영적 멘토링에 대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가족제자화 문화를 함양하기 위해 잘 계획된 절차에 더하여 시간과 자원이 필요하며 지름길과 조급한 제도화는 없습니다. 이 계획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예기되는 변화를 거부하는 큰 저항에 따르는데 이를 잘 극복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추진 과정에서부터 성공할 수 있도록 잘 연구된 계획서가 필요합니다.

가족제자화 문화 함양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구체적으로 필요한 문화변화 절차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거쳐야 할 '과정'에 크게 유의를 기울여야 함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2) 핵심적 고려 사항

이제 문화 변혁 과정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그 과정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핵심적 세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 관계된 사람들
- 교회와 가정의 문화
- 문화의 변혁 과정

a) 관계된 사람들

누가 과정상의 주된 관계자들인가?

교회의 어떤 그룹의 성도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며, 가족제자화 문화를 개발하는 과정에 참여할 것인가? 답은 교회 지도자, 성도, 가족입니다.

b) 문화 요소

두 번째 요소는 교회의 문화와 관련이 됩니다. 교회의 문화는 신앙과 교회 공동체가 공유하는 가치관, 그리고 그 믿음 및 가치관을 어떻게 함께 실천하느냐 하는 삶의 양식의 결과입니다.

어느 교회에서든 문화는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보이는 부분이라 함은 일어나는 일을 볼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일을 하는 행태, 행동, 처한 환경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힘이 느껴지는 부분은 가치관, 태도, 믿음, 교회공동체가 맡아주는 책임의식 등을 말합니다. 변혁 과정상의 궁극적인 우리의 목표는 성도의 연합체인 교회에 가족 제자화를 문화로 정착시키는 것이며 믿음, 가치관, 생활양식에 관련됩니다.

이러한 가족 제자화 문화를 함양하기 위해서는 세 분류의 관계된 사람들이 공유하는 믿음과 가치관의 변화가 요구되며, 결과적으로 이 믿음과 가치관이 가정과 교회의 삶에 한결같이 나타나야 합니다.

c) 문화 변혁 과정

문화변혁 과정은 세 단계로 구성 됩니다.

- 교회와 가정 내에서의 문화 변화 준비

- 실제의 문화 변화 이행

- 새로운 가정과 교회 문화의 정립

이 세 단계 설명은 John Kotter 의 변화 관리 모델에 기초하며 자세한 과정은 도표에 나온 내용과 같습니다.

제 1-4 단계는 변화의 준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 1 단계는 가족 제자화의 심각한 필요성에 대해 경종을 크게 울림으로써 세 이해관계자 그룹 가운데 교회와 가정의 문화 변화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핵심 전략 중의 하나는 가족 제자화의 신학적 이론을 이해 관계자들에게 제시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설득하려는 바를 뒷받침하는 연구조사 결과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략들이 교회의 지도자

들이 회중과 함께 진지한 확신을 불러일으키고 결과적으로 적절한 행동으로 실행에 이를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제 2 단계는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문화 변혁의 헌신하는 지도자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제 3 사명, 비전, 전략, 목표와 계획이 공식화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제 4 단계는 비전과 사명에 대해 회중, 가정이 관계된 사람들로부터 확실히 받아들이기 위해 소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방향성에 대한 진일보하는 강력한 단계는 지도자들이 가족 제자화 영역에 있어서 자신의 삶 가운데 변혁을 모범적으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제 5-6 단계는 변혁을 실천하는 과정입니다.

제 5 단계는 주로 변화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변화 계획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제 6 단계는 과정을 관찰하고 사전에 점점 높은 목표를 추구하는 이정표상의 성과를 축하하는 것입니다.

제 7-8 단계는 변화가 유지되고 장기적으로 견고한 토대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제 7 단계로서 일단 수립된 계획이 진행되면 더 동기 부여가 될 수 있게 하고 더 진전 못하게 방해하는 제도, 구조, 정책을 개선할 수 있도록 성취 이정표를 사용하기 바랍니다.

마지막 제 8 단계는 모든 적절한 변혁 전략을 실행하여 새 문화 (가정의 제자화)가 유지되고, 그것이 교회에서 점증적으로 삶의 양식으로 정착화되는 것입니다.

【논 찬】

논찬1-1:
가정이 곧 교회다

조영미 사모
(광주교육대학교, 광신대 객원교수)

들어가는 말

교육은 인간이 존재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인간과 함께 공존해왔다. 인간의 삶의 가치는 유무형을 막론하고 교육이라는 통로를 거쳐 공유되고 다음 세대에 전해지기 때문이다. 신앙 역시 교육과 함께 존재해왔다. 하나님은 신구약을 통해 가르침과 배움을 강조하셨고, 특히 가정의 신앙교육에 대한 그의 명령은 엄중했다. 신앙의 위인들은 하나같이 그 명령을 준수했다. 신약시대의 초대교회와 교부시대를 거쳐 종교개혁 시대에도 이 전통은 유지되었고, 종교개혁자들의 공통 관심은 부모에 의한 자녀교육의 강조였다. 루터는 신앙교육의 일차적 책임은 가정에 있다고 하였으며, 칼빈 역시 가정을 '작은 교회'라 칭하고 부모가 자녀의 신앙성장과 교육을 담당할 책임을 지녔음을 강조했다(현유광 2008:54-55). 근세에 이르러서도 부모의 교육에 대한 책임은 교회의 중심 가르침에서 비껴나지 않았다. 그러나 산업사회의 발달과 핵가족의 출현 등으로 신앙교육의 일차적, 핵심적 장소로서의 가정의 기능이 약화되기 시작했고, 주일학교의 출현과 맞물려 부모는 점차 일차적 자녀 신앙교육의 책임에서 한 발짝 물러서기 시작했다. 그리고 교회 성장과 2세 교육을 위한 최고의 신앙교육기관으로서 기독교교육의 센터 역할을 담당해왔던 주일학교가 쇠퇴하면서 쓰나미처럼 아이들이 교회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성장과 쇠락의 현상은 한국에서도 재현되었고 이제 신앙의 대 잇기에 모두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런 때에 21세기 교회와 가정의 신앙교육에 대하여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를 깨우치는Rev. Matthew Ling의 혜안에 깜짝 반갑다. 또한 가정과 교회의 동반자 역할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에 감

사하다. 막연하고 안타까웠던 마음에서, 함께라면 위기도 기회로 만들 수 있을거야 라는 마음으로 슬그머니 바뀐다.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하는 교회와 가정은 시 78:1-8의 말씀 "자손에게 알게 하라"는 명령을 어떻게 준행해야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교회의 성장이 멈추고 가정이 파괴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시대적 도전과 명제 앞에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바르게 반응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Rev. Matthew Ling의 가족의 제자화 논제의 글은 침체된 한국교회에 큰 도전과 과제가 되리라고 확신한다. 이 논찬에서는 먼저 Rev. Matthew Ling의 제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의 제안이 갖는 의의와 실제적 적용에 대해 생각할 점을 살펴본 후 본인의 제안을 간략하게 기술하고자 한다.

1. Rev. Matthew Ling의 제안

발표자는 '가정의 제자화'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교회와 가정이 어떻게 서로 연계하여 기여해야 할지 그 역할과 사명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먼저 그는 지금까지 제자훈련이라는 개념은 주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말씀공부, 기도, 예배 등으로 이해되어 왔고, 가정에서 자녀를 훈련하고 제자 삼는 일은 거의 간과되었음을 지적한다. 그는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과 전략에 우리의 눈을 돌리게 하면서,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세워가는 핵심전략으로서 가정(창1:26-28)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셨다고 역설하였다.

이에 대한 성경적 모델로 최초의 가정이었던 에덴의 아담과 하와, 아브라함의 가정, 신명기6장의 가정을 향한 쉐마 명령과,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가정의 역할과 규범(엡5, 6장)등을 제시하면서, 가정에서 부모의 핵심적인 역할이 제자 양육자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하나님께는 아브라함의 가정이 제자화되는 것이 민족 전체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국가를 성공적으로 건설해가는 일만큼이나 중요했음에 주목하게 한다. 또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19~20)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나타나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결정적 열쇠가 바로 제자훈련이며, 이 제자훈련을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핵심적인 전략이 바로 가정임을 명시한다. 즉 가정은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핵심요소이며 결정적 요소라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그는 지금까지 교회 주일학교가 가르치며(머리) 헌신하게(가슴) 만들어 왔지만 실제 삶에서 실천(손)하는 부분에서는 부족했다고 지적하였다. 이 영역이 바로 가정이 감당해야 할 부분인데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의 신앙형성을 위하여 3가지(1. 사랑의 관계 형성 2. 물리적 근접성 3.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공급하신다고 하였다.

발표자는 여기에서 가족으로서의 교회의 역할에 대하여 언급하며(엡 5:21-6:4) 교회와 가정은 동반자로서 이 일에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그는 모범적이며 건강한 가정이 담당해야 할 10개 영역(신앙의 형성, 결혼, 부모의 역할, 가정의 리더십, 성에 대한 인식, 노인 공경, 비 핵가족, 자원관리, 선교사명, 기도와 중보)을 열거한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리를 가르치며, 성도를 돌봄과 더불어, 성도로 하여금 가정과 지역사회와 세상에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를 훈련시키고 준비시켜야 한다고 기술하였다.

그는 가정의 제자화를 위하여 세 가지 주체- 교회 지도자, 신앙 공동체, 가정-가 혼연일체가 되어 각자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상호 연계를 통해 궁극적으로 이뤄야 할 제자화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삶에 동참하도록 가족을 이끌며, 그 결과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발표자는 제자화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가정과 교회 문화의 변혁을 주장하였다. 이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변화를 이끌어 내는 과정이 중요하며 제자화에 관련된 세 주체들- 교회 지도자들, 신앙 공동체, 가정-에게 변화가 있어야 한다. 문화 변혁 과정의 핵심적 3가지(관계자들, 교회와 가정 문화 요소, 문화 변혁과정)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관계자들은 세 주체자들을 지칭한다. 교회와 가정 문화의 요소는 믿음, 가치관, 생활양식과 관련되며, 문화변혁 과정은 세 단계- 준비 단계, 이행 단계, 정립 단계-로서, John Kotter의 변화 관리 모델을 근거로 8단계의 과정을 말하였다.

2. 제안의 의의와 생각할 점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믿음의 승계와 관련하여 오늘의 현실을 반추해 볼 때,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와 변혁은 필수적이다. 그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가? 오늘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데에서 해결의 출발점이 있다. 오늘 교회와 주일학교가 처한 심각한 위기의 배경에는 사회의 변화와 세속주의의 영향이 크다. 그러나 교회의 침체의 더 큰 원인은 교회가 성경적 교회의 모습을 상실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완성은 하나님의 창조 설계에 답이 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 건설에 있어 두 기둥이며 하나님의 핵심 전략이다. 이러한 점에서 Rev. Matthew Ling의 가정의 제자화론은 타당하고 합리적인 제안이다. 특히 성경과 교회 역사에 바탕을 두었기에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 계승의 주체는 교회와 가정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정의 1차적 책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부모는 신앙 교육의 핵심적인 주체자다. 부모가 자녀를 제자 만들지 못하면 다음 세대의 신앙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는 가정이 이 역할을 소홀히 되면 매우 심각한 위험이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주일학교에 일임하다시피 하고 교회에 아이들을 데려다 주는 것으로 책임을 다한 것처럼 여겨온 수많은 부모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이다. 동시에 그는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책임만 부여한 것이 아니라 그 막중한 책임을 완수하도록 하기 위해 사랑과 근접성과 가르침의 기회라는 맞춤형의 특수한 환경을 허락하셨음을 상기시키면서 부모들을 격려한다.

또한 Rev. Matthew Ling의 발제는 가정과 교회와의 경계선에 대해 명확한 답을 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는 온 가족을 제자 삼아야 하는 가정과 교회와의 관계를 명명함에 있어서, 각자의 영역과 역할에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제자화, 즉 머리와 가슴이 아니라 손에 해당하는 제자훈련의 영역은, 교회의 영역이 아니라 가정의 영역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가정과 교회의 역할 경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두 신적 기관들이 서로 협력해야 함을 강조한다. 그는 신명기 6:4-9의 말씀과 에베소서 5:21-6:9을 병렬적으로 조명하면서, 가정에서의 제자훈련의 말씀이 모두 공동체를 향한 당부의 말씀에 이어서 주어졌음에 주목하게 한다. 가족제자화란 교회 공동체와 동떨어져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부모들은 신명기 6:4-9의 부모에게 내려진 쉐마교육의 명령을 수행해야 함에 있어서 교회로부터 책임을 부여 받지 못했고, 구체적인 도움 역시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그는 주일학교와 청소년 사역자들이 아이들을 말씀으로 훈

련시키면, 부모가 이 사역을 이어받아 머리와 가슴으로 배운 것을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가족제자화의 개념을 교회의 관점에서 “교회가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제자 삼는 주요 훈련자로서 이를 인식하고 준비하고 책임감을 질 수 있도록 협조하는 과정”으로 정의했다. 가정을 세워 나가며, 가정 구성원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엡4:12), 그 틀과 방향과 내용을 제공해주는 일이 바로 교회가 할 일이라는 것이다. 그는 가정을 세우지 않고 교회를 세우려는 것은 새가 날개 하나만으로 날아오르려 용쓰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결국 추락한다는 것이다.

즉 신앙공동체인 교회는 큰 가정이다. 교회는 부모 교육에 힘써야 하고, 신앙 공동체는 함께 이를 이뤄가야 한다. 머리, 가슴, 손이 통합되는 신앙의 전인교육은 가정과 교회의 유기적 연합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런 연계가 원활하게 유기적으로 활성화될 때 교회와 가정의 문화는 정립되고 신앙의 증진은 계속될 것이다. 이에 덧붙여, 그는 무엇보다도 문화 변혁의 주체가 되는 교회 지도자들, 교회 신앙 공동체, 가족 모두에게 가정의 제자화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또한 문화의 변화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이를 이루기 위한 지름길이란 없으며, 이에 따르는 저항을 예견하고 극복해 나가야 함을 조언하였다. 이렇듯, 교회와 가정의 협업과 이를 위한 문화변혁의 과정까지 한 흐름으로 엮어냈다는 의미에서, Rev. Matthew Ling의 발제는 큰 의의가 있다.

이 발제를 바탕으로 문화 변혁의 3 주체자가 가족제자화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훈련을 받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안이 새롭게 모색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가족제자화에 관한 신학적 근거와 연구 자료들의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특히 Rev. Matthew Ling이 제안한 문화변혁의 모델을 참고로 각 교회와 성도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이에 대한 발제자의 고견을 듣고 싶다. 또한 가족제자화의 문화를 교회와 가정에 정착시키는데 성공하거나 혹은 그 과정에 있는 교회의 실제 예를 들려줄 수 있는지, 즉 문화변혁의 과정, 걸림돌이나 시행착오, 성공의 이정표가 된 변화나 앞으로의 비전 등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

3. 가족제자화의 제안들

1) “왜 부모를 끌어들여요?”

논찬자는 미국의 한인교회에서 영아부를 지도할 때 부모와 함께 예배드리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매주 부모교육을 실시하였고 그 외에도 분기별 혹은 비정규 교육 모임을 가졌으며, 부모상담, 부부상담의 시행 등, 가정을 세우는 일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 때 교회 안팎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왜 부모를 끌어들이냐’는 것이었다. 그 때 대답은 항상 똑같았다. “부모를 ‘끌어 들여야’ 한다!”. 덧붙여, 단순히 교회 사역의 보조 정도로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중심에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결과, 많은 저항을 이겨내고 교회와 부모와 아이가 함께 성장해 가는 가정중심교육의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교육부의 일부 부서만이 아닌 전체 교회와 가정 모두에 가정을 세우는 문화가 이루어지려면, Rev. Matthew Ling이 지적했듯이, 교회의 지도자 전체와 성도와 가정 모두의 인식변화가 일어나야 하고, 이를 필두로 구체적인 문화변혁의 전략들이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부모가 변해야 아이가 변한다. 아이의 부정적 행동이나 상처, 스트레스의 근본 원인이, 부모의 교육자로서의 자질과 인성 부족, 아이를 향한 세상적 욕심 등에서 시작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부모로부터 받은 영향은 평생에 걸쳐 아이 인생에 그 힘을 행사한다. 부모는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또 가족을 제자화시킬 수 있는 영적, 인지적, 정서적 능력 등을 구비해야 한다. 이 능력을 구비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교회의 몫이다. 유대인들의 회당이 예배당으로서 뿐 아니라 학교로서, 가정교회를 위한 교육의 내용과 방법과 자료를 제공해 주었듯이, 교회는 실제적인 부모 훈련의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즉 체계적인 성경공부와 경건의 연습으로 부모를 먼저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울 뿐 아니라, 자녀를 제자로 양육하는 구체적 방법에 대한 실제적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지금까지 교회에서 부모교육에 나름 노력해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교회가 교육의 중심에 서고 보조자로서의 부모의 역할 돕기에 그치는 단편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부모를 자녀 신앙교육의 중심에 세우는 전체적이고 체계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설계가 시급하다.

삶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해 주지 못하면, 신앙은 관념과 추상에 머물고 만다.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지, 아이의 성장단계에 맞게 어떻게 교육시킬

지, 기독교적 인생관을 어떻게 형성시켜 줘야 할지,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부부간의 사랑은 어떻게 가꿔 나가야 할지, 부모 공경은 어떻게 실천하도록 해야 할지,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성에 대해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아이들과 어떻게 대화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아이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을지, 아이의 마음은 어떻게 만져줘야 하는지… 등 부모가 훈련자로서의 능력을 구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2) 부모의 모델링 교육만큼 훌륭한 교육은 없다

신명기 6:4-9의 쉐마교육은 곧 하나님 중심 교육이요, 삶 속에 녹아 든 교육이다(현용수 2003:135-138). '집에 있을 때나 길에 행할 때나 누웠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강론하라'는 말씀은 삶의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는 말씀이다. 또한 쉐마교육은 아이로 하여금 말씀을 보고, 듣고, 외우고, 만지고, 그 말씀을 행하도록 이끄는 오감교육이며,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반복교육이다. 이 일이 가능한 사람은 교사가 아니라 부모다. 신앙은 지식으로 전달되기도 하지만 가장 효과가 큰 것은 삶 속에서 배우는 것이다. 밥을 먹듯이 숨을 쉬듯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에 대해 강론하며, 부모가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유대인들에게는 가정이 곧 성전이요 교회이다. 가정에서 진행되는 많은 일들이 하늘의 일이다. 가정에서 하는 일 자체가 곧 신앙이요, 삶 자체가 곧 예배다. 그들은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친다. 가족의 식탁은 예배를 위한 제단인 동시에 교육의 테이블이다. 잠들기 전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역시 교육의 시간이다. 밥상머리 교육과 베갯머리 교육인 것이다(전성수 2014). 삶을 살면서 예배하고, 예배하면서 삶을 산다. 디모데의 신앙도 그의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삶과 함께 형성되었다(딤후1:5, 3:15). 부모를 교육의 중심에 세우고자 함은, 삶 속에 녹아들지 않는 교육으로는 신앙의 대 잇기에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가정의 영적 선지자요, 리더요, 제사장이다(현용수 2003:73-74). 엄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엠'이란 단어에는 신앙과 진리, 아멘의 뜻이 담겨있다(전성수 2014:18). 아버지가 선지자 역할에 무관심하고, 어머니 역시 학교교육에만 매달리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교회 중직자의 자녀들이 왜 신앙에서 떠나는가? 부모가 본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부모는 교사인 동시에, 신앙의 선배요, 신앙의 훈련자이다. 아이와 함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동료 예배자이며, 삶 자체를 예배현장으로 만들어 가는, 아이가 따라가야 할 신앙의 모델이다. 인간의 뇌에는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을 보거나 듣기만 해도, 마치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거울세포'라는 것이 있다. 이 거울세포로 인해 다른 사람의 행동을 나도 모르게 따라 하고 사회화되어 가는 것이다. 부모는 24시간 켜져 있는 광고판과도 같다. 부모의 모델링 교육만큼 강력한 교육은 없다. 이에 대한 부모의 각성과 교회의 도움이 절실하다.

3) 세대통합예배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진 언약이다(창 17:7, 8). 야곱은 아브라함에게 받은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열 두 아들과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전수하였다.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라"(신6;2)고 당부했다. 3세대에 걸친 말씀 전수의 전통이 이어져 온 것이다. 유대인들이 수천 년의 유랑을 끝내고 1948년에 250만 명이 약속의 땅인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세대 간 갈등이나 신앙과 민족의 정체성에서 혼란을 겪지 않았던 이유 역시, 그들이 회당에서건, 가정에서건, 3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려왔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지식이나 정보에 대한 교육은 학교에, 신앙교육과 인격 교육은 교회에 맡기고, 정작 부모가 감당해야 할 가정 사역은 거의 포기하였다. 그래서 지금 어떤 사태를 맞이하였는가? 아이들은 대학을 졸업하면 90%이상이 교회를 떠난다. 자녀는 부모와 신앙도, 문화도, 사고방식도 다른 길을 걷게 되었고, 결국 언어도 문화도 다른 미전도 종족처럼 '땅끝선교'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오죽하면 자식을 가리켜, 낳을 땐 1촌, 대학 가면 4촌, 군에서 제대하면 8촌, 결혼하면 사돈의 8촌, 애 낳으면 동포, 이민 가면 해외동포라는 우스갯말까지 생겼을까?

각종 사회적 변화와 세속의 물결들이, 갈수록 가정과 세대의 통합보다는 분리를 조장한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 좁은 길을 가야하고 세태를 거슬러야 한다.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로서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에서 제외되고, 신앙 안에서의 동질감과

하나됨을 체험하는 기회를 박탈당했을 때, 아이들이 공동체를 떠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인지도 모른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말 4:6)

가족이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예배드리며 모든 세대가 상호작용하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세대의 격차를 줄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러 교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세대통합예배, 가족연합예배 등에 좀 더 힘이 실렸으면 한다. 동시에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도록 설교의 내용이나 찬송 등 예배의 구성 요소에 관해 세심한 연구와 개발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교회 내 모든 세대가 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듣고, 주중에도 큐티, 소그룹, 가정예배, 식탁교제 등을 통해 같은 내용을 가지고 가정교육이 이뤄지도록 하는 원포인트 통합교육도 대안이 될 것이다(http://coommi.org).그 외 주일 오후를 가정과 함께 보내도록 배려하기, 3대가 함께 드리는 가정예배나 기도회 지지, 모범 기독교가정이나 부모의 표창 등은 가정을 세우는 문화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부모와 함께 드리는 어린이 예배>

논찬자가 부모중심의 영아부 사역을 하던 중, 가정과 교회의 협력을 주제로 하는 오렌지 전략으로 유명한 노스포인트교회(North Point Community Church)를 방문하여 유치부부터 5학년 학생들의 예배인 키즈스텁(KidStuf)에 참석한 적이 있다. 이 예배는 부모와 함께 드리는 예배로 짜여 있었는데 부모들의 80%가 예배에 참석하며, 그날 배웠던 내용과 새로운 찬송 등이 부모들에게 제공되고 있었다. 곧 주일에 배운 성경말씀을 주중에 가정에서 아이들과 나눌 수 있도록 대화의 내용이나 질문 등이 부모들에게 제공되는데, 대화의 내용은 식사 중 대화, 차 안에서의 대화, 잠자기 전 대화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야말로 ‘집에서나 길에서나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나 부지런히 말씀을 강론하라’는 신명기 말씀을 구현할 수 있도록 교회가 구체적으로 돕고 있는 모습, 즉 가정과 교회의 동반자적 협응의 모습이었다.

주일학교에서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예배드리며 공부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할지 모르나, 부모와 아이들 모두에게 주는 유익이 참으로 크다. 부모가 아이들의 교육현장을 참관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같은 신앙의 감동을 맛볼

수 있다. 또한 교회의 교육과 가정의 교육이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부모와 청소년 자녀가 함께 하는 제자훈련캠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교회의 지도자들과 온 성도와 가족들의 인식의 전환과 함께 이런 예배가 점차 활성화된다면, 가정과 교회는 동반자로서 한층 가까워질 것이다. 이를 위해 부모와 아이 모두를 타겟으로 하는 예배를 구성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활동 등을 배치한다. 분기별 혹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시작하여, 횟수를 조정하거나 내용 등을 보완해 가는 등 점차적 변화를 꾀하면 좋을 것이다.

4) 불신자 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배려

불신자 가정의 자녀들이나, 가족 제자 삼기의 범주에서 벗어나 있거나 붕괴된 가정으로 인해 신음하는 아이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의 학교식 주일학교 교육을 탈피하고, '가르치는 교사'에서 아이들과 소통하며 '삶을 나누는 교사'로서 아이와의 관계 재정립이 필요하다(은준관 2007). 아울러 불신자 자녀들을 위한 '믿음의 양자 삼기', '가정 같은 교회 만들기' 등의 대안적 제자화 프로그램 등도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5) 사랑에도 방법이 있다

마지막으로 Rev. Matthew Ling의 제안을 실행함에 있어서 '관계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아이를 신앙으로 양육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것은 우리가 수행해야 할 절대절명의 사명이다. 그러나 이를 어떤 방식으로 수행하느냐에 따라 아이들에게는 전혀 다르게 전달될 수 있다.

부모라면 누구든 자녀를 사랑한다. 자녀를 사랑하기에 신앙을 물려주고 싶고, 또이 과업 수행에 있어서 사랑은 필수다. 자녀교육의 동기도, 과정도 모두 사랑이다. 그러나 사랑의 의도가 모든 것을 정당화시키지는 않는다. 사랑에도 방법이 있고 기술이 필요하다. 아무리 바르고 좋은 내용이라 해도 아이의 존재 자체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바탕 없이 행해지는 교육은 폭력이다. 관계가 파괴된 곳에서 진정한 의미의 교육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무조건적 사랑의 관계에서 오는 정서적 안정이야말로 자녀 교육의 핵심이다. 화가 나고 마음이 불편해지면 우리의 마음 문이 닫힌다. 우리의 뇌 역시 감정을 담당하는 뇌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공격과 방어를 담당하는 뇌가 활성화되면서,

창의적인 생각과 올바른 행동을 주관하는 이성의 뇌가 닫힌다. 그래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 앞에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며' 라는 말씀이 전제 조건처럼 붙어 있다. 물론 크게 보면 부모가 아이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는 일 자체가 아이를 노엽게 하는 일이다. 그러나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자 할 때 아이를 노엽게 하지 않는 교육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아이를 노엽게 하면 배움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롬12:15)는 공감과 소통의 바탕 없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교육이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

아이의 필요나 아픔을 외면한 일방적인 가르침은 아이를 교육의 주체로 세우지 못한다. 교육자가 가정이건, 교회학교건, 그 둘의 연합이건에 상관없이, 신앙교육의 장은 그들에게 또 하나의 소외된 공간일 뿐이다. 각종 화려한 프로그램마저도 아이들에게 외면당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이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이와의 관계성 구축이다. 관계의 단절로 인해 생겨난 공허감은, 외부에서 배운 지식이나 기술로 채워지지 않는다. 아이들이 손쉽게 스마트폰이나 게임에 중독되는 이유도, 관계의 단절로 인한 공허감을 채우고자 하는 욕구 때문이다. 모든 중독은 애착의 실패다. 그래서 중독의 반대는 관계다. "중독의 반대는 맨 정신이 아니다. 중독의 반대는 사람간의 연결이다(The opposite of addiction is not sobriety. It is human connection)."고 지적한 요한 하리(Johann Hari 2016)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아이와 눈을 맞추는 것, 아이를 안아주는 것, 아이와 함께 노는 것, 아이와 대화하는 것, 아이와 마음의 주파수를 조율하는 것 등 긍정적 상호작용의 바탕이 없는 그 어떤 교육도 성공하지 못한다. 이 사실을 가족제자화라는 대 명제 앞에서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싶다.

나가는 말

네 자녀를 제자 삼으라!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에 이어, 속도보다는 각도가 중요하다는 말까지 회자된다. 방향도 각도도 조절해야 할 때다. 이제는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그럼에도 여전히 부모를 중심에 세우는 일에 고개를 갸웃거린다. 아이도 부모도 너무 바쁘다는 것이다. 교회학교를 더 보완시키면 되지 않느냐고 한다. 무게추가 교회에서 가정으로 옮겨지는 것에 불안해한다. 필요성은 알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한다. 그러나 그렇게 손 놓고 있는 동안, 우리의 자녀들은 잃은 양이 될 것이

고, 우리의 신앙은 우리 대에서 끊길 것이고, 우리의 교회는 텅텅 비어 흔적 없이 사라지든지, 아니면 유적지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너무 흔한 말이긴 하지만, 역시 '위기는 기회'다. 이 위기를 통해, 교회가 가정을 중심에 세우고,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과 신앙을 전수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미래의 건강한 교회로 탈바꿈한다면, 이 위기는 오히려 기회다. 이 위기를 통해 부모가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게 주신 자녀를 제자 삼는 사명을 깨닫고, 자기 자녀를 제자 삼는 일에 발 벗고 나선다면, 이 위기는 오히려 대박이다. 이 위기야말로 가정과 교회가, 목회와 교육이, 세대와 세대가 통합하여,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가정과 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가정친화적 교회 포럼과 Rev. Matthew Ling의 소중한 제언은 이를 위한 불쏘시개다.

이제는 먼 길 돌아와 거울 앞에 설 때다. 교사와 선지자와 제사장으로서의 부모, 교회로서의 가정, 그리고 큰 가정으로서의 교회!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이 교회와 가정의 아름다운 하모니의 회복으로 인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온 나라가 살아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참고문헌〉

1) 레지 조이너, 김희수 역(2011), 싱크 오렌지, 디모데
2) 은준관(2007), 기독교교육현장론, 한들출판사
3) 전성수(2014), 유대인 엄마처럼 격려+질문으로 답하라, 국민출판사
4) 헨리에타 미어즈, 조계광 역(2013), 주일학교의 모든 것, 생명의 말씀사
5) 현용수(2003), 부모여, 자녀를 제자 삼아라, 아름다운 세상
6) 현유광 (2008), 교회교육 길라잡이, 생명의 양식
7) http://coommi.org
8) Johanne Hari(2016), Chasing the Scream: The opposite of Addiction is Connection, Paperback

【논 찬】

논찬1-2:

이덕진 장로
(뉴패러다임인스티튜트 대표)

발제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1.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뜻하여 세우셨으며 이 둘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이다.
2.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성화, 곧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3. 이 제자화의 과정은 삶의 현장인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다.
4. 부모는 가정에서 가족을 제자로 훈련하는 첫 번째 책임자이다.
5. 이를 위해 교회는 부모를 훈련시켜 작은 교회인 가정을 세우게 하는 책임이 있다.
6. 또한 부모는 신앙의 형성, 부모의 역할 등 주요 생활 영역에서 제자훈련을 받아야 한다.
7. 교회와 가정은 제자화가 문화로 정착되도록 다음 세 가지를 포함한 개발과정이 필요하다.

1) 관계된 사람들 (stakeholders), 곧 교회 지도자, 성도, 가족 모두의 참여와 지지
2) 믿음과 가치관의 공유, 그리고 삶의 양식으로 이어져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게 하기
3) 문화 변혁을 위해 준비단계, 실천단계, 정착단계를 성공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논찬 의견을 드립니다

1. 부모가 가정목회의 리더가 되어 자신의 가정을 하나의 작은 교회로 만들고 예수

님의 제자로 가족에게 사랑, 수용, 훈련, 예배하는 삶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많은 교회 지도자들과 가정 사역자들이 이 점에 적극 동의하지만 현실은 바람직한 수준과는 거리가 먼 것이 사실이라 할 것입니다. 이 중요한 과제를 매튜 링 목사님이 깊은 연구를 바탕으로 실행 방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한 일입니다.

2. 부모가 가족 제자화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성경 말씀들을 신구약에서 적절히 인용하셨습니다.

1) 인용한 말씀 중 목회의 대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서 4장 11-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2) 이 말씀은 오늘날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 교회를 섬기는 전문 목회자는 소명을 따라
-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 평신도(부모 포함)를 가르치고, 역할을 부여하고, 지원하여
- 봉사의 일을 하게하며 = work of service/ministry, 제자화, 목회활동을 하게 하여
-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

3)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평신도를 최대한 동원하여 전문 목회자를 도와 교회 사역에 동참하거나 앞장서게 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적용해 온 것이 사실이며, 대개의 경우 오늘날 “교회”의 범주에 가정이라는 교회는 강조하여 포함하지 않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4) 그러나 매튜 링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의 개념에 자칫 제외될 수 있는 가정이라는 교회를 확실하게 포함하였고, 이를 적용하여 오늘의 발제를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정이라는 교회는 부모가 목회를 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교회의 전문 목회자들은 부모를 훈련하는 책임이 있다” 는 것을 탁월하게 제시하셨습니다.

3. 한편으로, 바람직한 가정 목회의 본래의 모습을 잃게 된 배경에는 가정과 교회가 본래 그리스도의 몸으로 유기체(organic) 였으나 점차 교회가 독립된 조직체(organization, institution)로 변질되어 왔기 때문이며, 이제는 다시금 교회와 가정이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4. 이러한 회복의 과정은 일련의 큰 변화를 필요로 하는데 다행히 매튜 링 목사님은 발제에서 변화의 프로세스에서 원론적으로 중요한 고려 사항들도 제시하였습니다. 논찬으로 제안하기로는 여기에 더하여 이번 포럼에서 함께 발제하시는 박상진 소장님의 “가정친화적 교회 교육의 방안”에서 제시되는 “부모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교육 새판짜기” 10개 아이디어와 이의 실현에 필요한 “새로운 목회구조의 제안” 등의 보다 구체적인 아이디어들을 추가한다면 향후 실행 과정에서 큰 시너지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5. 변화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 대하여 몇 가지 생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1) 가족 제자화의 전략을 실행에 옮기는 노력은 아직 일부 교회에서 시범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러나 많은 교회가 문화를 바꾸어 나가는 큰 변화에 동참하여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념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필연적으로 나타날 많은 도전과 저항요인들을 극복할 수 있는 치밀하고 끈기 있는 변화관리 계획이 사전에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이를 위해 가능한 많은 목회자와 학부모 그룹을 대상으로 새로운 교육목회 비전을 공유하고, 선도하는 소수의 교회와 목회자 그룹이 먼저 결심하고 시범 교회로 자원하여, 비록 100% 완전하지는 못하여도 60~70% 이상의 준비가 된다면 과감히 실행에 옮겨 조기에 성공 사례들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4) 성공적 변화에는 세 가지 요소가 모두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해당사자 대부분이 변화의 필요를 절감해야 하고, 분명한 비전과 목표가 공유되어야 하고, 구체적 실행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한국교회의 학부모와 목회자에게는 이미 변화의 필요성이 충분히 공유되어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튜 링 목사님

이 발제하신 가족제자화의 제안들은 대다수 이해당사자가 비전과 목표로 삼을 수 있는 타당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한 가지 남은 것은 '구체적 실행' 이므로 선도 교회에서 작은 성공들을 보여주고, 이를 지켜보는 보다 많은 교회에서 실행에 합류해 나간다면 가정의 제자화라는 커다란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5) 오늘의 포럼에 이어 6월 4일 서울에서 속개되는 "가정친화적 교회교육문화 정착 방안 워크샵"을 통해 보다 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대단히 희망적입니다.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제2강】 가정 친화적 교회교육의 방안

박상진 소장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장신대 교수)

I. 한국교회 교회교육의 위기 진단

한국교회의 교회교육이 위기에 처해 있다. 교회학교 학생 수가 격감하고 있으며 다음세대 신앙의 대 잇기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 글에서는 먼저 한국교회 교회학교의 현실을 진단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려고 한다. 교회학교의 위기는 양적 위기와 질적 위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양적 위기의 현실에 초점을 맞추면서 질적 위기까지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탐구하려고 하다. 먼저 교회학교 학생 수의 지난 10년간의 추이를 정확히 분석하고, 학생 수가 감소하였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진단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학교 학생수 추이를 한국사회의 학령인구 추이와 비교,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다음세대 목회의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1. 종교인구의 감소: 탈 종교화

지난 2016년도 12월 19일에 통계청이 발표한 '2015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집계 결과'에 따르면 종교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탈종교화 현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종교없음'이 2005년도에 47.1%인 것에 비해 2015년도에는 56.1%로서 10% 가까이 증가하였다. 반대로 종교인구는 52.9%에서 43.9%로 감소하였다. 특히 젊은층의 종교인구 감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5년과 비교할 때 종교 인구 비율이 가장 크게 감소한 연령은 40대로 13.3% 감소했고, 다음이 20대(12.8%), 10대(12.5%)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연령대 별 종교인구 분포 (2005, 2015)

연령	2005년		2015년		증감
	없음(A)	있음	없음(B)	있음	(B-A)
계	47.1	52.9	56.1	43.9	9.0
10-19세	49.5	50.5	62.0	38.0	12.5
20-29세	52.1	47.9	64.9	35.1	12.8
30-39세	52.1	47.9	61.6	38.4	9.5
40-49세	43.5	56.5	56.8	43.2	13.3
50-59세	37.4	62.6	49.3	50.7	11.9
60-69세	36.7	63.3	42.3	57.7	5.6
70세 이상	37.0	63.0	41.8	58.2	4.8

자료: 통계청

이러한 탈종교화 현상은 한국갤럽의 종교통계 보고서인 <한국인의 종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15년도에 한국갤럽이 그동안 우리나라의 종교 현황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것을 종합하여 발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종교인구가 지난 2004년에는 54%였는데 10년 사이에 50%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종교인구가 적은 것을 알 수 있는데, 20대의 경우는 지난 2004년에는 45%였는데 10년 사이에 14%나 감소하여 2014년에는 3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60대 이상의 종교인구 비율의 절반도 안 되는 수치이다. 불과 10년 만에 14%가 감소하였다는 것은 엄청난 '탈종교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향후 20년, 30년 후의 한국의 종교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할 것을 예견하게 해 준다.

《표 2》 연령별 종교인 비율 (%)[1)]

	2004년	2014년
19~29세	45	31
30대	49	38
40대	57	51
50대	62	60
60대 이상		68

2. 한국교회 교회학교 학생수 감소

1) 한국갤럽, <한국인의 종교: 1984-2014> (서울: 한국갤럽조사연구소, 2015), 17.

2017년도에 개최된 제102회 총회에 보고되는 2016년 기준 교세통계를 보면 작년도(2015년)의 278만9102명보다도 5만 8200명이 감소한 273만900명으로서 이는 최근 몇 년의 감소 중에서 가장 큰 감소라고 할 수 있다. 이는 500명 성도 교회가 100개 이상이 1년 사이에 사라진 셈이다. 5만8200명 감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인들은 다음세대이다. 교회학교 학생들과 청년들이 감소한 것이다.

한국교회의 교회학교 학생들이 어느 정도 감소했느냐? 교회학교 전부서가 감소하였는데, 아동부의 경우, 지난 10년 사이에 41.9%나 감소하였다. 장로교 통합 교단의 지난 10년간의 교회학교 학생수 추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3》 2007~ 2016년 예장 통합 교회학교 학생 수 추이

년도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고등부
2007	16,655	23,025	75,136	79,532	85,580	106,015	193,215
2008	17,737	23,184	74,751	74,223	83,783	104,897	193,344
2009	17,297	22,956	72,184	69,924	80,056	100,520	195,275
2010	18,305	24,571	67,378	64,232	74,327	89,900	188,308
2011	21,429	24,130	64,731	58,419	69,015	83,266	180,308
2012	18,733	23,641	62,251	56,519	64,175	76,090	171,660
2013	17,101	21,555	58,293	50,840	59,423	68,175	157,409
2014	17,523	23,323	57,649	51,112	57,880	64,637	152,327
2015	17,325	22,659	55,435	48,110	55,317	62,358	146,763
2016	16,403	22,109	52,053	46,020	54,173	56,147	134,904

이 자료는 2017년 예장통합 총회에서 보고된 교세통계를 근거한 것인데, 모든 부서가 예외 없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 영아부는 2011년 기점으로, 유아부는 2010년을 기점으로 감소 추세로 바뀌었고, 유치부의 경우는 지난 10년 사이에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등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회학교의 경우는 2006년, 2007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중고등부는 2009년부터 급격한 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년(2007-2016) 간의 부서별 교회학교 학생 수 감소율을 보면 영아부가 2011년 이래 23.5% 감소하였으며, 유아부가 2010년 이래 10.0% 감소하였고, 유치부가 지난 10

2)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 제99회 총회 회의록, 2014.

년 사이에 30.7%가 감소하였다. 초등학교 학생에 해당하는 부서의 학생수 추이를 보면 지난 10년 사이에 유년부가 42.1%, 초등부가 36.7%, 소년부가 47.0% 감소하였는데, 초등학생의 경우 평균 41.9%가 감소한 셈이다. 중고등학교 교회학교 학생수 추이는 지난 10년 동안 30.2%가 감소하였다. 이를 학령인구 추이와 비교해 보자. 지난 10년 사이의 학령인구 감소율은 초등학생의 경우 -31.3%인데 이에 근거해 볼 때, 교회학교 초등학교 학생수는 학령인구보다 10% 이상 더 감소한 셈이다. 중고등학생의 학령인구 감소율은 -20.5%로서 교회학교 중고등학생의 감소율(30.2%)이 10% 가까이 더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교회학교 학생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도 문제지만 학령인구보다도 약 10% 더 감소하는 현상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원인 분석연구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의 학령인구 추이는 다음의 도표와 같다.

《표 4》 2007~ 2016년 학령인구 추이

(단위:천명)

연도	계(6-21)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2007	10,368	3,806	2,095	1,971	2,495
2008	10,221	3,643	2,071	2,032	2,475
2009	10,062	3,464	2,025	2,067	2,506
2010	9,901	3,297	1,962	2,069	2,574
2011	9,709	3,124	1,892	2,045	2,648
2012	9,494	2,940	1,846	2,000	2,708
2013	9,260	2,794	1,794	1,937	2,734
2014	9,001	2,708	1,702	1,869	2,722
2015	8,728	2,656	1,573	1,823	2,676
2016	8,451	2,613	1,460	1,772	2,606

3. 교회학교 학생 수 미래 예측

향후 교회학교 학생 수는 어느 정도일까? 통계적으로 과거 통계치를 근거로 미래를 예측하는 시계열 분석(Time Series Analysis)[3]을 통해 장로교 통합 교단의 교회학교 학생 수(영아부부터 중고등부까지 포함)를 예측해보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

3) 시계열 분석이란 변수의 과거 변화를 설명하고 미래의 값을 예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통계기법이다. Kachigan, *Statistical Analysis*, New York: Radius Press, 1986

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계열 분석 방식 중 ARIMA(Auto-Regressive Moving Average Model)모형을 사용하였는데, Box와 Jenkins에 의해 개발된 ARIMA모형은 대표적인 시계열 분석 모형으로 주어진 해당변수의 시계열 자료가 어떤 모형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고 그 모형에 적용시켜 해당변수의 미래 값을 예측하는 방법이다. 물론 이 예측은 모든 변인을 고려하여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은 아니다. 과거의 통계 자료 속에 내재해 있는 규칙성을 발견하여 이를 근거로 미래를 추정하는 것인데, 교회학교 학생 수의 과거 추이 속에는 이미 학령인구 감소와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시각 등 다양한 변인이 작용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확한 미래 교회학교 학생 수 변화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1994년도부터 2014년도 현재까지의 교회학교 학생 수 추이를 파악하고, 향후 2021년까지의 교회학교 학생 수를 예측해 보면 다음의 도표와 같다.

《표 5》 1994-2021년 교회학교 학생 수 예측

연도	교회학교 학생 수	연도	교회학교 학생 수	연도	교회학교 학생 수	연도	교회학교 학생 수
1994	654,417	2001	569,347	2008	571,919	2015	409,467
1995	604,254	2002	549,024	2009	558,212	2016	397,803
1996	630,140	2003	557,500	2010	527,021	2017	386,139
1997	618,413	2004	566,032	2011	501,298	2018	374,475
1998	618,405	2005	563,874	2012	473,069	2019	362,810
1999	578,271	2006	576,323	2013	432,796	2020	351,146
2000	601,822	2007	579,158	2014	421,132	2021	339,482

이 예측에 의하면 2021년도에는 장로교 통합 교단의 교회학교 학생 수가 339,482명으로 감소하게 된다. 이는 1994년을 기준으로 보면 48.1%가 감소하여 거의 절반 수준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2012년 이후 10년 동안에 28.2%가 감소한 수치이다. 그리고 2015년 현재보다도 약 7만 명이 감소한 결과이다. 1994년도와 비교해 볼 때 현재도 교회학교 학생 수가 급격하게 감소한 상태이지만 향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임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요인이 작용하지만 그 외의 다른 요인이 영향을 주어 학령인구 감소 속도보다 더 빠른 감소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비율로 지속적으로 교회학교 학생 수가 감소한다는

것은 결국 교회학교가 소멸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도 한국교회의 48%가 교회학교가 없는 현실이지만 그나마 존재하던 교회학교마저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통계인 것이다. 통계적인 미래 예측은 과거의 감소 경향에 근거하여 이렇듯 부정적인 미래로 조망하고 있지만 예측된 미래와는 다른 미래를 가져올 수 있다. 그것은 과거와는 다른 '영향력 있는' 변인이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부흥을 가능케 하는 변인인 것이다. 과거의 방식 그대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를 일으킴으로 미래 예측 결과를 변형시키는 교육의 혁신이 필요한 것이다.

4. 교회학교의 위기 요인 분석

필자가 최근 '교회학교 위기 요인 분석 연구'를 실시하였다. 교회학교의 위기에는 무언가 유발 요인이 있을 것이고, 이것이 무엇인지를 분석해야 정확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예상되는 교회교육 위기 요인을 교사, 교육내용 및 방법, 교회, 교회학교, 노회 및 교단, 부모, 학교, 문화, 종교, 인구 10가지로 설정하였다. 각 요인별로 2~6개 문항으로 개발하여 위기의 중요한 원인인지 5단척도로 물었다. 그 결과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6》 교회교육 위기 요인 순위

순위	요인	평균	백점 환산
1	부모요인	4.16	83.2
2	학교요인	3.70	74.1
3	교육내용, 방법요인	3.70	74.0
4	교사요인	3.64	72.7
5	종교요인	3.63	72.6
6	문화요인	3.36	67.2
7	교회학교요인	3.36	67.2
8	인구요인	3.17	63.5
9	교회요인	3.09	61.8
10	노회, 교단요인	3.07	61.5

《표 7》 위기 요인 인식(5단 척도)

순위	위기요인	문항	평균	백점 환산
1	부모요인	가정의 신앙교육 부재가 문제다	4.35	87.0
2	부모요인	부모들의 세속적 자녀교육관이 문제다	4.07	81.4
3	부모요인	부모의 신앙 저하가 문제다	4.07	81.4
4	종교요인	기독교의 신뢰도 추락이 문제다	3.88	77.5
5	교육내용,방법요인	학생들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	3.87	77.5
6	학교요인	학업과 신앙이 연계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3.86	77.2
7	교육내용,방법요인	학생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	3.84	76.8
8	학교요인	주일에 학원가는 것이 문제이다	3.84	76.7
9	교사요인	교사의 사명감이 부족하다	3.76	75.2
10	학교요인	입시위주 교육이 문제다	3.73	74.7
11	교육내용,방법요인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것이 문제다	3.66	73.1
12	종교요인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문제다	3.62	72.4
13	교회학교요인	학생 전도가 약화된 것이 문제다	3.62	72.4
14	문화요인	반기독교적 미디어 문화가 문제다	3.60	72.0
15	교사요인	교사의 학생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3.60	71.9
16	종교요인	반종교적 분위기가 문제다	3.56	71.3
17	교회학교요인	교회교육이 재미없다	3.55	70.9
18	교사요인	교사 수가 부족하다	3.51	70.3
19	인구요인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가 문제다	3.48	69.6
20	종교요인	중대형교회로의 수평이동이 문제다	3.44	68.8
21	학교요인	학교에서 반기독교적인 영향을 받는다	3.39	67.8
22	교육내용,방법요인	교육부서간의 연계성이 부족하다	3.35	67.1
23	교회학교요인	학생 수로 인한 침체된 분위기가 위축되는 것이 문제다	3.32	66.5
24	교회학교요인	교육부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3.25	65.1
25	교회요인	교육담당 교역자의 역량이 문제이다	3.24	64.8
26	교회학교요인	교육 시설이 부족하다	3.23	64.6
27	노회, 교단 요인	총회교육정책의 한계이다	3.23	64.5
28	교회학교요인	부서 예배가 지루하다	3.21	64.3
29	교회요인	담임목사님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3.18	63.5
30	교회요인	교육예산이 부족하다	3.16	63.2

31	노회, 교단 요인	교회학교 제도가 문제이다	3.15	62.9
32	문화요인	놀토로 인해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	3.13	62.6
33	교회요인	교육부서장(교육위원장)의 한계이다	3.02	60.5
34	노회, 교단 요인	노회의 지원이 부족한 것이 문제다	2.98	59.7
35	노회, 교단 요인	공과 교재가 문제다	2.92	58.4
36	인구요인	도시화로 인한 인구이동이 문제다	2.88	57.5
37	교회요인	교육전도사 제도가 문제다	2.87	57.4

위의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교회학교 위기의 첫 번째 유발 요인은 부모이다. 부모가 누구냐가 교회학교가 부흥하는지 침체하는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문항별로 분석하더라도 가장 높은 점수는 '가정의 신앙교육 부재가 문제다'로 나타났다. 2위는 '부모들의 세속적 자녀교육관', 3위 '부모의 신앙저하가 문제다'로 부모요인이 1, 2, 3위를 차지하였고, 모두 80점 이상을 받았다. 다음으로 '학교요인', 근소한 차이로 '교육내용, 방법 요인'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위인 '학교'요인과 부모요인을 연결하여 해석한다면, 자녀 학업에 대한 부모의 교육관이 다음세대 신앙교육을 결정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은 오늘날 교회학교의 위기를 극복할 대안이 부모를 자녀 신앙교육의 주체로 세우는 것임을 알 수 있고, 부모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교육의 새판짜기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Ⅱ. 부모중심 교육목회의 기초

1. 성서적 기초

부모중심 교육과정은 성서에 기초한다. 하나님은 가정을 창조하시고 부모에게 자녀 교육의 사명을 맡기셨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속의 은총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지체된 성도들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 교육의 사명을 맡기셨다. 가정과 교회, 이 두 기관이 연계되어 성도들과 그 자녀들을 거룩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신명기 6:4-9은 자녀교육의 책임이 부모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혀준다. 이 말

씀은 '들으라 이스라엘아'로 시작되는 쉐마의 말씀인데 부모에게 자녀 신앙교육의 책임을 맡기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은 부모로 하여금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도록 교육할 것을 명령하셨다. 에베소서 6:4에서도 부모들에게 자녀양육의 사명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것을 명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가 분업화되고 학교제도가 발달하면서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것으로 교육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의 현실 속에서는 부모가 사교육기관인 학원에 보내거나 과외를 시키는 것으로 자녀교육의 사명을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심지어 신앙교육마저 주일 아침 교회학교에 보내는 것으로 책임을 다한 것으로 생각하고 가정에서는 자녀 신앙교육을 소홀히 하는 경향마저 있다. 그러나 구약의 창세기부터 신약의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흐르는 자녀교육에 대한 성경적 원리는 가정의 부모가 그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다. 학교에 보내거나 교회학교에 보내는 것은 일종의 위탁일 뿐 책임은 여전히 부모에게 있는 것이다.

교회가 유아세례를 베푸는 것은 이러한 교회와 가정의 연계를 분명히 전제하는 것이다. 유아세례는 부모가 신앙고백을 하고 그 고백에 터하여 부모가 자녀를 신앙적으로 양육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베푸는 예식이다. 사실 유아세례는 수세자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공동체적 사건이고, 이는 공동체적 책임을 요청하고 있다. 고대교회가 세례식을 앞두고 온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한 것은 이러한 세례의 공동체성 때문이다.[4] 이는 "유아의 성장기간 동안 신앙 안에서 그들을 지속적으로 양육해야할 책임이 부모에게 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있음"을 의미한다.[5] 교회는 유아세례를 베푸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이후 가정에서 부모가 지속적으로 자녀를 신앙적으로 양육하고 있는지를 격려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교회는 유아세례를 받은 아이가 성년이 되어 입교문답을 하기까지 가정에서 부모가 신앙교육 제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교회와 가정, 가정과 교회의 연계는 이러한 가정에 대한 교회의 책임과 교회에 대한 가정의 책임을 실현하는 통로가 된다. 가정이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은 채 자녀 신앙교육을 교회학교에 전가시키는 것도 올바르지 않고, 가정에서만 신앙교육을 실시하고 교회의 교육적 기능과 역할을 무시하는 것도 자녀교육의 올바른 모습이 아닐 것이다. 이 두 기관이 상호 연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

4) 김홍연, 『세례, 입교 교육의 이론과 실제』(서울: 쿰란출판사, 2007), 127.
5) 위의 책, 130.

습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한 아이의 기독교적 성숙을 생각할 때, 가정과 교회는 분리되지 않는다. 두 기관이 서로 연계하고 협력함으로 자녀가 하나님의 일군으로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공헌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2. 생의 여정으로서 교육과정: 쿠레레

전통적인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는 '가르쳐야할 그 무엇'(what)과 동일시되었다. 즉, 교육과정(curriculum)은 교육내용으로서 학생들의 삶 바깥으로부터 누군가 부과하는 일련의 지식더미로 이해되어졌다. 한국의 상황에 비추어볼 때는 학교교육에 있어서 제7차 교육과정과 같은 것이고, 교회교육에 있어서는 총회에서 제공되는 커리큘럼과 이로 인한 공과책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의 커리큘럼은 명사형이며 이미 고정된 무엇이며 학생들의 삶으로부터 출발된 것이 아니라 탈맥락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타일러(Tyler)의 커리큘럼 이론에 따르면 교육과정 작성의 과정은 교육목표의 설정, 학습경험의 선정, 학습경험의 조직, 평가의 순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은 단선적이고 폐쇄적이며 학습자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교육과정의 재개념화(reconceptualization)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종래의 커리큘럼에 대한 이해와는 달리 '쿠레레'(currere)로서의 교육과정을 제안한다.[6] 쿠레레는 동사로서 명사형인 커리큘럼이 의미하는 '말이 달려야하는 경주 코스'라는 개념보다는 '말이 달려가는' 경험과 과정 자체를 의미한다. 윌리엄 파이너(William Pinar)는 이런 점에서 교육과정을 삶의 여정(life journey)으로서 보았고, 이에 터하여 그의 독특한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자서전적 방법'(autobiographical method)을 제시한다. 쿠레레와 삶의 여정으로서 교육과정은 학생 외부에서 학생에게 주입되는 객관적 지식이 교육과정이 아니고 학생들의 삶과 경험에 주목하면서, 그들의 삶의 여정을 돕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학생들은 '나의 길'(my way)이 있고, 획일주의적으로 정형화된 인간이 되기를 요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신만의 독특한 삶을 살아가야 하며, 기독교교육은 그 여정을 돕는 동적인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칼 융(Karl Jung)이 말하는 개성화(individuation)와 같이 페르조나(persona)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참된 자아(true self)를 추구하는 여정이 되도록 돕는 것을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학생들의 삶과 분리된 교재를 주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6) 박승배, 『교육과정학의 이해: 역사적 접근』(서울: 양서원, 2001), 172.

아니라 학생들의 삶의 여정과 경험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도록 도와주는 것이 요청된다. 가르쳐야 할 교육내용이나 교재가 아니라 학생이 커리큘럼이라는 개념이 바로 이것이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맞춤형 교육과정'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학생의 맞춤형 교육과정이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 가정이다. 부모는 자녀의 진정한 교사이고, 자녀의 인생여정과 신앙여정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다. 동시에 부모 자신도 부모라는 삶의 여정을 잘 걸어가며 부모의 발달단계마다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할지를 잘 안내받아야 한다. 교회는 이러한 부모의 신앙여정과 자녀양육의 여정을 잘 도와줄 수 있는 부모교육을 통해 진정한 교육과정을 실천할 수 있다.

3. 공동체로서의 교육과정

전통적인 학교식 교육과정은 교수(teaching)와 수업(instruction)을 강조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잠재적 교육과정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공동체 안에서의 사회화(socialization)와 문화화(enculturation)를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며, 특히 신앙교육은 신앙공동체 안에서 형성(formation)되어진다는 것을 주목하지 못한 것이다. 신앙공동체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며 영향력있는 공동체는 가정공동체일 것이다. 부모의 삶과 자녀를 향한 태도, 양육방식 등을 통해 신앙은 문화화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신앙적인 대화, 더불어 있는 시간, 눈맞춤, 안아주기, 가정예배 등은 무엇보다 중요한 신앙교육의 통로가 된다. 교회학교도 수업이 이루어지는 교실 이전에 공동체가 될 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신앙이 형성된다. 형식적 교육과정(formal curriculum)만이 아니라 비형식적 교육과정(informal curriculum) 또는 잠재적 교육과정(hidden curriculum)을 통해 신앙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존 웨스트호프(John Westerhoff)는 전통적인 교회교육을 '학교-교수형 패러다임'(schooling-instructioanl paradigm)으로 규정하면서, 이러한 교회학교 체제로는 신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주장하였다.[7]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그가 제시한 교육의 유형은 '신앙공동체-문화화 패러다임'(faith community-enculturation paradigm)으로서 신앙공동체 안에서 문화화를 통해 신앙이 형성된다고 주장하였다.[8] 그의 교육과정

7) John WesterhoffIII, *Will Our Children Have Faith?*, 정웅섭 역, 『교회의 신앙교육』(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1983), 31.
8) 위의 책, 93.

은 교회학교가 전체 교회공동체와 분리된 학교교육으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3세대가 함께 있는 신앙공동체로서 교회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문화적 경험들을 통해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에게 있어서 신앙은 하나의 문화이며 삶의 방식으로서 이러한 문화 속에 참여하고 경험함으로서 신앙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웨스트호프는 교회공동체와 가정공동체의 연계를 별도로 강조하지는 않았지만, 신앙공동체로서 교회와 가정이 각각의 공동체 안에서 문화화를 통해 자녀들을 위한 신앙교육을 실천할 뿐 아니라 교회와 가정이 공동체적으로 연합하여 더불어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더 넓은 기독교교육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것은 그의 공동체적 교육과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지식전수에 초점이 맞추어진 기존의 학교식 교육과정이 아닌 공동체적 교육과정, 특히 신앙공동체로서 가정과 교회가 연계하는 기독교교육공동체로서의 교육과정이 요청된다.

4. 앎과 삶의 통합/ 인식론적 기초

기독교교육도 어떤 형태로든 지식과 관련되어 있고 앎을 다루게 된다. 그런데 이 앎은 삶과 분리된 앎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개혁신학자들의 전통에 따르면 신앙(faith)은 하나님 알기(knowing God)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데 여기에서의 앎은 히브리 동사로는 야다(*yada*)를 의미하는데, 앎의 주체와 객체가 분리된 객관주의적인 앎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앎, 공동체적인 앎, 상상적인 앎, 그리고 참여적인 앎을 의미한다. 즉, 삶과 분리된 앎이 아니라 삶과 통합된 앎이요, 존재론적 인식론(ontologic-epistemology)에 근거한 앎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이클 폴라니(Michael Polanyi)의 책 『개인적 지식』(*Personal Knowledge*)에 의하면 심지어 과학의 영역에서도 객관적인 지식은 존재하지 않는다.[9] 사실 앎의 주체와 앎의 객체가 분리되어 있는 '순수 객관적 실제'(purely objective reality)는 없다. 어떤 형태로든 앎의 주체는 앎의 객체 속에 내주(indwelling)하게 되어 있고, 참여(participation)하고 있으며, 삶의 상황(context)과 분리된 앎은 존재할 수 없다. 과학적인 연구에 있어서도 앎의 주체와 분리된 순수 객관적인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탐구 대상의 선정에서부터 과학자의 열정, 신념, 주관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10]

---

9) Michael Polanyi, *Personal Knowledge:Towards a Post-Critical Philosophy*, 표재명, 김봉미 역, 『개인적 지식: 후기비판적 철학을 향하여』(서울: 아카넷, 2001), 210-211.

기독교교육이 앎과 삶이 분리된 형태로서 앎에 집중하고, 그 앎도 지식 전수 위주의 '주입식 교육'의 형태를 띠게 될 때, 삶의 변화라고 하는 기독교교육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 지식교육으로 전락하지 않고 신앙적 차원의 변화를 이루는 기독교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소위 강의 위주의 교육을 탈피하여 교사의 삶, 부모의 삶과 학생들의 삶이 나누어질 필요가 있다. 앎의 주체와 앎의 객체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은 교사와 부모의 영성, 확신, 열정, 헌신, 환대, 실천이 교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기독교교육 교육과정에 있어서 형식적인 교육과정만이 아닌 참여, 소통, 공동체적 나눔, 인격적 관계 등의 잠재적 교육과정의 중요성을 진지하게 고려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5. 신앙과 학업의 연계

부모가 자녀를 신앙적으로 양육할 때 자녀의 학업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을 지니고 신앙과 학업이 연계되도록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일본과 같은 유교문화권 국가의 경우는 학업과 성적, 입시 문제에 대한 고려 없는 부모교육, 자녀교육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미국을 비롯한 해외의 부모교육 교재를 받아들여도 한계가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이런 교육적 특성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부모/가정 중심 교육목회는 교회와 가정의 연계만이 아니라 학업까지 연계시키는 교회, 가정, 학교(학업) 통합의 삼위일체 기독교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신앙과 학업은 어떤 연계성을 갖고 있는가? 성경에서 신앙과 학업이 연계되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잠 1:7의 말씀일 것이다.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과 지식의 근본이라는 학업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음을 선포한다. 사실 기독교교육은 학업을 소홀히 하는 교육이 아니다. 보다 더 균형 잡히고 온전한 교육을 추구하는 것이다. 신앙과 학업, 신앙과 학문은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은 반지성주의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이 무식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다. 모든 지식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 지식과 상관없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지혜로워지고 슬기로워지고 '지식의 근본'이 되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구조를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신앙 - 태도 - 학업의 관계 구조이다.[11]

---

10) 박상진, 『기독교교육과정탐구』, 76-85.
11) 박상진,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학습법』(서울: 두란노, 2010), 36.

신앙과 태도, 그리고 학업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여경지근'의 원리는 바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성경적인 자녀 학습법은 이 세 가지의 연계성에 주목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로 세우고, 그래서 그 자녀의 태도가 달라지고, 그 태도의 변화로 말미암아 지속적으로 학업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돕는 것이다. 신앙과 태도가 형성되지 않은 채, 학업 성적만을 올리려는 노력은 지혜롭지 못하다. 왜냐하면 기본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곧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부의 목적과 의미도 모른 채, 그리고 공부하는 태도와 습관도 형성되지 않은 채, 억지로 공부시키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은 방법이다. 가장 온전한 학습법은 바로 신앙과 태도, 그리고 학업이 더불어 성숙하는 '성경적 학습법'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교육방법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단지 '교회 다니는 부모'가 아닌 '기독학부모'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갖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독교적 교육관, 기독교적 자녀이해, 자녀 성품교육, 학업과 은사이해, 학교와의 관계 등의 주제들을 가르치고 생활화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Ⅲ. 가정/부모중심 교육목회의 실제적인 사례들

1. 가정 친화적 교회

티 제야쿠마(T Jeyakumar)는 말레이시아에서 시도된 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목회를 소개하고 있다. 그는 〈가정 친화적 교회: 가정과 교회가 함께하기〉(Family-Friendly Church: Home and church Joining Hands)라는 책에서 가정 친화적 교회가 전통적인 교회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전통적인 교회는 교회 중심적, 가정 지원적 목회라면 가정 친화적 교회는 가정 중심적, 교회 지원적 목회이다. 전통적인 교회가 신앙형성을 교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는 반면 가정 친화적 교회는 신앙형성이 가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여긴다. 전통적인 교회는 목회자, 청소년 사역자, 교회학교 교사들을 중요한 제자양육자로 여기지만 가정 친화적 교회는 부모를 가정에서의 제자양육자로 여긴다.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부모가 가정에서 의도적으로 신앙형성을 할 수 있는 주체로 세워지지 못하는 반면 가정 친화적 교회에서는 교회가 부모를 가정에서의 신앙형성의 주체자로 세운다.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아동들, 청소년들, 부모들이 교회의 다양한 프로

그램과 활동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지만, 가정 친화적 교회는 부모와 자녀들을 가정에서 서로 함께 더 많은 시간을 갖도록 배려한다.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가정에서부터 구성원들을 빼내와 교회에서 많은 모임을 프로그램을 갖지만, 가정 친화적 교회에서는 교회가 프로그램과 모임, 모임시간을 대폭 줄인다.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부모가 아동이나 청소년 사역에 거의 참여하지 않지만, 가정 친화적 교회에서는 부모가 그들의 자녀들이 속해 있는 아동 및 청소년 사역에 깊이 참여한다.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신앙형성이 전임사역자나 자원봉사자의 몫이지만 가정 친화적 교회에서는 전임사역자가 부모의 역할을 가로채지는 않는다.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성별로, 연령별로 인위적으로 구분한 프로그램 사역으로 인해서 가족이 분열되지만, 가정 친화적 교회에서는 세대 통합적 목회를 통해 의도적으로 세대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돕는다.[12)]

그는 가정 친화적인 교회를 다음과 같이 정의내리고 있다. "가정 중심적이고 교회 지원적 목회로서 교회 안에서 부모가 기초적인 기독교교육자가 되는 교회로서, 가정은 젊은이들을 신앙적으로 세우고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한 하나님이 기름부으신 기관으로 인정하는 교회이다."[13)] 그는 이 교회를 프로그램 중심 교회와 대비시키고 있는데, 프로그램 중심 교회는 세대 간에 거의 연결이 없는 채 사역들이 분리되어 조직되는 교회로서, 가정사역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또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존재하는 교회이다.

그가 강조하는 가정 친화적 교회의 핵심 가치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모든 자녀들의 신앙형성은 기본적으로 부모의 책임이다.
- 실제적인 신앙형성은 교회 안에서 재현되는 각 가정 안에서 이루어진다.
- 교회는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 제자양육자가 되도록 돕는다.
- 교회에서의 예배는 의도적으로 세대 통합예배를 지향한다.
- 모든 가정은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선교지에서 (가정 단위로) 봉사하도록 세워진다.
- 그들의 부모가 교회에 속하지 않은 아동이나 청소년은 한 가족에 입양되도록 하여 그들도 기독교 가족의 상황 안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한다.
- 부모는 의도적으로 그들의 자녀들을 소그룹에 참여하도록 초대하는데, 왜냐하면 부모자신과 자녀들을 위한 성장과 변형은 세대통합적인 소그룹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

12) T Jeyakumar, *Family-Friendly Church: Home and Church Joining Hands* (Selangor, Malaysia, Faith Books, 2014), 5-6.
13) 위의 책, 44.

- 모든 세대가 교회 안에서 예배, 공부, 교제, 캠프, 스포츠 등을 통해 다른 세대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 교회 목회자들은 그들 자신이 유일한 사역의 자원이 아니라 사역의 자원을 향하여 돕도록 훈련되어진다.
- 교회 사역들은 가족 시간의 필요에 대해 민감해야 한다.[14)]

그는 이러한 핵심가치에 근거하여 교회 차원에서의 3년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 8》 가정 친화적 교회의 3년 교육과정

1년	2년	3년
가정 친화적 교회에 대한 설교(1월 첫째 주일)	가정 친화적 교회에 대한 설교(1월 첫째 주일)	가정 친화적 교회에 대한 설교(1월 첫째 주일)
부부와 부모들이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안내학기. 가정예배 교재들 소개하기	신혼부부 및 가정들을 위한 모범 가정예배, 가정예배 교재들 소개하기	부부와 새로운 가정들을 위한 모범 가정예배. 가정예배 교재들 소개하기
교회 안에서 세대 통합 놀이하기(3월)	교회 안에서 세대 통합 놀이하기(3월)	교회 안에서 세대 통합 놀이하기(3월)
교회에서 가족 단위의 부활절 행사	교회에서 가족 단위의 부활절 행사	교회에서 가족 단위의 부활절 행사
결혼과 독신에 대한 설교(5월 첫째 주일)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설교(5월 첫째 주일)	성공적인 가정에 대한 설교(5월 첫째 주일)
가족 캠프(6월)	가족 캠프(6월)	가족 캠프(6월)
교회 안에서의 가정 워십팀을 형성하기 위한 충원과 훈련	가정 중심의 국내선교 팀 형성을 위한 충원과 훈련	가정 중심의 해외선교 팀 형성을 위한 충원과 훈련
가족 스포츠 축제(7월)	가족 스포츠 축제(7월)	가족 스포츠 축제(7월)
세대 통합 소그룹을 위한 리더와 가정들 훈련하기. 그에	세대통합 소그룹 형성과 지속적인 훈련과	세대통합 소그룹 형성을 위한 격려

14) 위의 책, 110.

따른 소그룹 형성하기.		
가정 친화적 도서관 만들기. 결혼준비, 결혼, 자녀양육, 격대교육 등에 대한 책들 비치하기. 교회 소식지에 독후감 나누기.	아동, 청소년, 동성애에 대한 상담, 이해에 대한 더 많은 도서들. 아동과 청소년들이 스스로를 이해하는 도서들 마련하기.	멘토링과 대부제에 대한 더 많은 도서들. 독후감 나누기는 교회 뉴스레터에 소개하기.
모든 위원회 모임이 주중에 한날 밤에 집중해서 이루어지도록 격려하기.	모든 위원회 모임이 주중에 한날 밤에 집중해서 이루어지도록 회상하기.	모든 위원회 모임이 주중에 한날 밤에 집중해서 이루어지도록 강화하기.
부모되기, 대부모되기에 대한 설교(9월 첫째 주일)	자기 자녀 및 다른 가정의 자녀 양육하기에 대한 설교(9월 첫째 주일)	아동과 청소년 양육하기에 대한 설교(9월 첫째 주일)
결혼서약을 되새기는 설교(11월 첫째 주일)	결혼서약을 되새기는 설교(11월 첫째 주일)	결혼서약을 되새기는 설교(11월 첫째 주일)
교회에서 성탄행사: 가족발표회	교회에서 성탄행사: 가족발표회	교회에서 성탄행사: 가족발표회
세대통합 소그룹이 가정의 봉사활동으로 소규모의 성탄절 이벤트를 수행하기	세대통합 소그룹이 가정의 봉사활동으로 소규모의 성탄절 이벤트를 수행하기	세대통합 소그룹이 가정의 봉사활동으로 소규모의 성탄절 이벤트를 수행하기

2. D6 모델

론 헌터(Ron Hunter Jr.)에 의해 시작된 D6운동은 전통적인 교회학교를 통한 다음세대 교육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고 있다. D6는 신명기 6:5-7에 기초한 것으로서 그의 책 *The DNA of D6: Building Blocks of Generational Discipleship*에 잘 설명되어 있다. 신명기 6장에서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듯이 자녀의 신앙교육의 책임이 부모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부모를 다음세대 양육자로 세우는 교회교육의 새로운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에서 '부모들'이라는 범주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전통적인 부모만이 아니라 아버지/조부의 역할이 없이도 자녀제자양육의 사명을 잘 감당한 디모데의 홀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 디도를 영적으로 입양한 바울과 같은 입양부모, 인척관계이지만 에스더에 대해 부모의 역할을 감당한 모르드개 등이 포함된다.[15)]

15) Ron Hunter Jr., *The DNA of D6: Building Blocks of Generational Discipleship*, 김원근 역, 『신6』 (서울: D6코리아, 2016), 36-37.

D6은 1:168을 강조하는데 이는 한 주간의 시간인 168시간의 대부분을 보내게 되는 가정에서 부모의 신앙적 영향력이 주일 오전 1시간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대비는 과장된 부분이 있지만 가정에서의 자녀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필자가 전국의 교회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에 의하면 주일 아침 분반공부 평균 시간은 11-15분이었다. 주일학교라는 제도는 있고 분반공부라는 프로그램은 존재하지만 사실상 기독교교육은 없는 셈이다. 부모를 교육의 주체로 세워서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D6은 그래서 호소력이 있는 것이다. 167시간을 모두 부모가 자녀를 변화시키는 데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니지만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줄 때, 밥 먹을 때, 그리고 집에서 보내는 저녁시간 같은 주요 시간 동안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16]

D6는 '귀가 하나 뿐인 미키 마우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데, 청소년 사역이나 교회학교가 전체 교회와는 분리된 채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삶의 실제와도 분리되는데 교회가 다음세대를 위해 교회학교를 부지런히 운영하지만 전체 목회와 괴리되어 있는 문제를 잘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담임목사의 역할과도 연결된다. 교인들은 담임목사를 따라하게 되는데, 담임목사가 다음세대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교인들도 다음세대에 무관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담임목사가 다음세대 목회의 한복판에 서야 하고, 교회학교가 미키 마우스의 귀가 아니라 교회 전체 속에 다음세대 목회가 자리잡아야 한다.

D6가 전통적인 교회교육에 가장 도전을 주는 부분은 목회 구조에 대한 비판이다. 전통적인 목회구조는 병렬적이어서 목회자 밑에 어린이 사역, 청소년 사역, 청년 사역, 성인 사역이 열거되어 있는 방식이다. 가정사역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역마저 또 하나의 독립된 하위 영역 활동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D6은 목회자가 다음세대 전체를 관장하는 가정사역자와 행정목사를 세우고, 자녀대상의 모든 교육을 가정사역자인 D6조직 담당자가 관할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다.[17] 그리고 교육담당 교역자들과 함께 168시간이 자녀교육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한다. 론 헌터는 이런 질문을 던진다. "우리 사역자들이 미팅할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오로지 주일 아침 예배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에만 중점을 두고 논의하고 있는가?" 주일 예배나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168시간을 위한 목회를 하라는 것이다.

16) 위의 책, 60.
17) 위의 책, 145.

Ⅳ. 부모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교육 새판짜기

오늘날의 교회교육을 역사적인 시기로 구분한다면 주일학교 시대가 종말을 고했지만 그 대안적 교육이 분명히 부각되지 않은 과도기적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기독교교육의 역사를 구분할 때 구약시대, 신약시대(예수님의 교육, 바울의 교육), 초대교회 시대, 중세시대, 종교개혁 시대, 주일학교 시대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오늘날은 그 주일학교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갈망하고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1780년 영국 글로체스터에서 로버트 레익스(Robert Raikes)에 의해서 시작된 주일학교가 하나의 기독교교육 패러다임으로서 지난 수 세기동안 기능해왔지만 작금에 이르러 여러 가지 한계를 드러내면서 교회교육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지만 아직 그 대안적 패러다임이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과연 주일학교 또는 교회학교 이후의 기독교교육 패러다임은 어떤 모습일 것인가? 필자는 교회학교 중심, 교사 중심의 교회교육에서 부모 중심, 가정 중심, 교구 중심의 다음세대 교회교육으로의 전환을 제안하고자 한다.

부모가 변해야 자녀가 변하고, 가정이 변해야 교회학교가 변한다. 부모를 신앙의 교사로 세워야 한다. 오늘날 교사교육은 많고, 교사헌신예배는 거의 모든 교회가 드리지만, 부모교육은 많지 않고, 학부모 헌신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여전도회, 남선교회는 어느 교회나 있지만 사실은 그들의 더 중요한 역할은 믿음의 부모가 되는 일이다. 한국교회에 여전도회, 남선교회가 많은 공헌을 했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부모, 특히 기독학부모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단지 교회 다니는 부모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크리스챤 부모'가 되도록 부모를 세워서,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드리고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담당하는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 자신이 신앙이 새로워져야 한다. 이제라도 부모를 깨워서 가정을 신앙교육의 장으로 변화시키는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세속적인 자녀교육열이 아닌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자녀를 교육할 수 있도록 교회마다 기독학부모교육을 시작할 것을 제안하며, 그 부모교육을 축으로 다음세대 교육을 재편성할 것을 제안한다.

1. 갈린스키의 부모 발달단계

갈린스키(Ellen Galinsky)라는 학자는 저서 *The Six Stages of Parenthood*에서 자녀의 성장과 더불어 부모도 성장하는지, 그리고 성장한다면 부모들도 자녀들처럼 어떠한 단계를 거치는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갖고 부모들을 연구하였다[18]. 갈린스키는 다양한 유형의 부모들, 태아에서부터 18세까지의 자녀를 둔 228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기의 단계를 도출해 내었다. 단계란 한 사람이 자신의 중요한 심리적 과업이나 해결해야 할 문제에 정서적· 지적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시기를 말한다. 갈린스키가 말하는 부모기의 단계는 일반적으로 발달심리학에서 말하는 생애주기의 단계와는 그 개념이 다른데, 부모의 발달단계는 이미지 형성기, 양육하는 단계, 권위 형성 단계, 설명하는 단계, 상호 의존 단계, 떠나보내는 단계로 나누어진다. 그 단계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제1단계: 이미지 형성기(the image making stage) - 임신기간

이미지 형성기란 임신기간 동안에 예비부모들이 부모로서의 자신 이미지를 형성하고 수정해 가는 시기를 말한다. 자녀의 출산을 기다리는 예비부모들은 여러 가지 상상으로 가득 차 있으며 결혼하기 전과 아주 유사한 흥분과 불안, 기쁨과 초조 등의 복합적인 감정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이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태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스도인 예비엄마는 아기가 모태에서 수정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알고 이미지 형성기를 보내야 한다.

이 기간 동안에 자신이 어떤 부모가 되기를 원하는지 생각하며 어린 시절 자기 부모와의 경험을 되돌아보고 부모로서의 이미지를 형성한다. 아기는 몸과 마음이 건강한 부모에게서 기쁨 속에 잉태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부모는 근심을 떨쳐 버리고 적극적인 바람과 소망을 가지고 아기를 기다려야 한다. 여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존과 복종 그리고 헌신이 요구된다. 또한 부부의 진실된 애정이 필수조건이다. 예비부모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체에 대한 감사와 감격,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에 대한 찬양이 있어야 한다. 예비아빠는 예비엄마의 필요를 잘 이해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시기에 배우자와의 관계 변화에 대하여 대비하는

18) Ellen Galisky, *The Six Stages of Parenthood*, 권영례 역, 『아이의 성장, 부모의 발달』(서울: 창지사, 1997). 정갑순, 『주여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리이까』(서울: 총신대출판부, 2003) 참조.

일도 필요하다. 예비 아빠는 정기적인 병원 검진 뿐 아니라 태교교육에도 함께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비아빠가 아침저녁 자고 깰 때마다 엄마의 배 위에 손을 얹고 아기와 엄마를 위해 기도한다면 태어날 아기와 예비부모는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2) 제2단계: 양육하는 단계(the nurturing stage) - 출생~생후 2년

양육하는 단계는 자녀의 출생에서부터 24개월까지를 일컫는다. 이 단계에서 부모는 아기와 애착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언제 어떻게 얼마나 많이 베풀어야 할 것인가를 배우게 된다.

새로 태어난 아기의 부모로서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그 아기가 자신의 아기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림으로써 아기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일이다. 부모들이 새로 태어난 아기를 자신의 아이로 받아들이는 일과 함께 부딪히는 또 다른 문제는 “내가 아기를 정말 잘 돌볼 수 있을까?” 하는 결정이다. “정말로 내가 이 아기의 부모가 될 능력을 갖고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생각을 갖게 된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다른 직업을 갖는 것과는 다르다. 놀라움과 책임감으로 인한 근심의 순간들을 경험하면서 부모로서 조금씩 성장하게 된다. 이는 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한 책임감과 관련된다. 성경에서도, 삼손이 태어날 것이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 그 아버지 마노아가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까”(삿 13:12)라고 물은 것을 찾아볼 수 있다.

부모와 아기가 점차로 서로에 대해 알아나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분리와 결속의 문제이다. 부모는 아기가 자신과 분리되거나 결속된 상태의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한다. 결속과 관계된 ‘애착’이란 어떤 사람을 다른 특별한 사람과 공간적으로 함께 하며 시간적으로 영속시킬 수 있도록 묶어주는 애정의 끈이다. 아기는 부모와의 애착관계를 통하여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하여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데 이것은 에릭슨(E. Erikson)이 말하는 세상에 대한 기본신뢰감을 형성하는 것이다. 부모가 아기에게 적절히 반응할 때 아기는 긍정적인 자아개념과 자신감을 갖게 된다. 부모는 아기와 애착을 형성해감에 따라 자신의 자아가 변화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부모 자신에 관한 것은 뒤로 밀려나고 아기로 인하여 엄마의 생활이 완전히 바뀌게 되며 부모의 생활리듬이 엉망이 되어버리기도 한다.

부모는 자녀를 보다 독립적인 아기로 키우기 위해 몰아붙이려 하는가 하면

어린 아기로 남아 있기를 바라기도 한다. 이러한 특징은 걸음마 시기에 현저히 나타난다. 이 때 부모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생각하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모에게는 자녀를 객관적인 측면에서 하나의 인격체로 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독립된 개체로서 볼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심오한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주며 다른 한 인간을 완전히 돌보며 그 성장을 지켜보고 새로운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쳐다보며 더욱 인생에 대하여 잘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3) 제3단계: 권위 형성 단계(the authority stage: 2-4.5세)

권위를 형성하는 단계는 자녀의 나이가 만 2세경부터 4-5세까지의 시기를 일컫는다. 이 단계의 부모는 어떤 유형의 권위가 있는지, 규칙이란 무엇이며 그 규칙은 어떻게 정해지고 언제 시행되며 또한 언제 그 규칙은 깨어질 수 있는지 결정해야 하는 일들을 맞게 된다. 이 시기에 부모는 자녀에게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에 대한 약속, 규칙, 규범에 대하여 가르칠 수 있다.

이 시기에 권위를 형성하도록 재촉하는 것은 자녀들의 의사소통 능력의 급격한 증진이다. 자녀는 "싫어, 아니야, 내가 할래."와 같은 말을 하게 되면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해야 하게 되는데 부모는 이것을 지도하게 되는 권위를 가진 위치에 서게 된다. 자녀는 3세가 되면 '사회적 이유기'를 맞아 사회적 반경이 부모나 가족 이외 다른 사람에게로 확장된다. 부모, 가족, 친척 정도였던 사회적 관계가 슈퍼마켓, TV의 장난감 광고, 다른 아이들과 그들이 가진 물건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놀이방이나 유아교육기관, 그리고 교회학교에 관한 것들로 보다 넓은 세상으로 확장된다. 이러한 변화에 자녀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부모는 가르쳐야 하고, 효과적 가르침을 위해 부모는 권위를 가져야 한다.

이 시기의 유아들은 부모가 자신들을 통제하는데 얼마나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는지 부모를 시험하곤 한다. 이 때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자로서 가진 권위는 부모 자신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임을 알아야 한다. 부모가 권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한데, 특히 자녀를 이해하는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 이 때 부모와 자녀간의 '힘겨루기'가 생겨날 수 있는데, 이것을 피하는 기술이 요청된다. 부모도 자녀도 아무도 지지 않는 모두가 이기는 '무패방법'의 의사소통 기술을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 이 단계를 성공적으로 이끌지 못하고 자녀가 실행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원칙을 강요하는 부모는 자녀를 억압하는 부모가 될 수도 있다.

이때의 부모 과제 중의 하나는 자녀와의 일체감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는 일이다. 자녀의 행동이 바람직하지 못할 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평가한다고 생각하게 되며 부모들이 잘못 행동하였기 때문이라고 느끼며 죄책감을 갖게 되곤 한다. 자녀는 부모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독립된 인격체이므로 객관적으로 자녀를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엎드려 하나님과 자녀문제를 의논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권위 형성기에 부모가 직면하는 또 다른 주요 과업은 자녀의 올바른 성 역할 개념과 성 정체감을 갖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이 단계에서는 서로 다른 성을 가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심층심리학에서 말하는 '오이디푸스적 관계'가 일어날 수 있다. 자녀가 한 쪽 부모에게 관심을 쏟을 때 다른 쪽 부모는 강한 반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유아교육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유아자녀 성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4) 제 4단계: 설명하는 단계(the interpretive stage) - 5세~초등학교 시기

이 단계 부모기의 주요과업은 설명해주는 일이다. 이 시기의 부모들은 계속 쏟아지는 자녀들의 질문에 대답하여 자녀들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와 그에 대한 부모의 생각을 설명해 주며,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가지는 생각 등을 설명하게 된다.

이 시기의 부모는 자녀에게 권위로써 무조건 요구하거나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생활, 유치원, 학교생활, 교회생활에서 자녀가 직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 문제, 갈등 등에 대해 솔직하게 부모의 입장, 부모의 생각, 부모의 바람을 설명해야 한다. 이 때 부모는 자녀가 비록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실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 시기에 부모로부터 설명되어진 가치판단이나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한 자녀들의 생각은 후에 그들이 부모 곁을 떠나 있을 때 그들의 삶의 지표가 되어 방향을 설정해 나가기 때문이다.

또한 이 시기의 자녀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 외에도 부모, 형제자매, 친구, 친척, 교사, 조부모 등 주변 사람들의 생각을 참조하여 자아개념을 형성한다. 자녀를 하나의 독특한 인격체로 인정하는 일은 부모기의 계속적인 과정의 한 부분인데, 자녀는 가정 안에서나 세계 안에서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확신에 거하도록 설명해 주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자녀는

긍정적 자아개념과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을 대처해 나가는 능력을 잘 개발하게 된다. 이 시기의 자녀는 에릭슨에 의하면 솔선성 대 죄의식, 근면성 대 열등감이 형성되는 시기이므로 주변에서 지나치게 제지하거나 처벌하면 죄의식과 열등감이 형성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앞 단계에서 시작하여 계속되어 온 자녀의 공격성, 반항 등의 문제는 이 단계에서 다루어야 할 주제들이다. 권위를 형성하는 단계에서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는 자녀에게 무엇을 줄 것이며 언제 승낙하고 승낙하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하여 언어적으로든 비언어적으로든 자녀와의 생활 속에서 설명해주어야 한다. 동시에 부모는 자녀의 말이나 자녀의 세계에 대해서도 들을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 시기에 자녀들은 교회에서 배우는 성경이야기와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서 이 새로운 관심 분야에 대해 더욱 깊은 질문을 하게 된다. 아이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급격히 자라나며 예수를 자신의 구세주로 모실 준비가 되어 간다. 부모는 자녀가 하나님, 천국, 죽음, 죄에 대하여 묻는 질문에 민감해야 하나 자녀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정을 강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자녀는 교회에 대한 부모의 태도, 세상에 대한 가치관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

설명하는 이 단계에서 부모는 자녀와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한다. 유아기 자녀와의 불평등한 관계에서부터 비교적 평등한 관계로서 부모와 자녀 양쪽을 서로 설명해 가는 쪽으로 변화가 가속화된다.

5) 제 5단계: 상호의존 단계(the interdependent stage) - 십대의 시기

이 단계에서 십대들의 부모들은 어느 날 갑자기 변해 있는 자녀들을 보고는 깜짝 놀라곤 한다. 이제 자녀는 옛날의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시기는 아동기에서 청년기로 넘어가는 전환기로서 부모와의 관계는 더욱 미묘해지며, '감사할 줄 모르는 시기'라고 느껴진다. 이 때 여러 상황에 잘못 대처하면 다시는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지 못할 위험에 빠지기 쉽고 나아가 앞으로의 생활에도 심각한 타격을 받기 쉽다.

자녀가 십대가 되면 마치 네다섯 살 때로 돌아간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며 부모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등, 그들의 정서 상태가 질풍노도와 같이 움직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일들은 부모를 매우 흥분시키고 때로는 화나게 하며 심한 경우에

는 자녀를 폭력으로 다스리는 일까지 생기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모는 혼란과 좌절을 겪으며 새로운 친자간의 이미지를 정립해야 하는 과업에 직면하게 된다. 기쁨이나 긍지의 순간과 벼랑 아래로 떨어지는 것 같은 고통의 순간이 교차되는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너무 몰두하고 있어서 주변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맹목적인 행동도 하며 부모의 의견이나 생각을 무시해 부모를 걱정시키고 불량배 같은 행동을 하여 놀라게 하기도 한다. 부모는 이러한 십대들의 특징을 이해해야 한다. 지금까지 4단계까지 잘 성장한 자녀라면 5단계인 상호의존 단계도 큰 어려움 없이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자녀가 성장할수록 부모의 도움 없이 모든 일을 해나가게 되며 자기들만의 세계를 갖고 있다. 아직은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당당히 자신의 삶을 주장하는 자녀 앞에서 부모는 자녀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이 줄어가고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그리하여 자녀의 성장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함과 동시에 자녀가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음에 대한 서운함이 교차하게 된다. 자녀는 새롭게 변화된 세계 속에서 살고 있으므로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권위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 부모는 자신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인식해야만 자녀와의 관계에서 문제되는 상황에 직면할 때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취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자녀는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자세를 갖게 되며, 종교적 체험을 아주 즐거워하면서도 때때로 많은 의문을 갖고 질문을 하며 신앙을 의심하기도 한다. 이 시기 자녀들의 영적 발달을 위해서 부모 혼자서 해결할 수 없으므로 이 시기 자녀들의 부모들은 자녀들의 영적 성장에 대해 교회 지도자들과 의논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시기 자녀들의 정신세계는 독립을 원하며 신뢰받기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으며, 충고보다는 확신을 받고자 한다. 첫사랑을 경험하는 시기이므로 정상적인 충동을 부모가 지나치게 금지 또는 억압하게 되면 성도착증과 같은 동성연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정신의학자들의 견해이다. 십대의 자녀를 둔 부모들이 맞게 되는 또 다른 과업은 자녀의 정체감을 수용하는 일이다. '나는 누구인가'하는 자기 정체감을 찾는 과정에서 부모로부터의 분리가 반드시 따르게 된다. 이러한 정체감을 형성하기 위하여 십대들은 부모에게 저항하고 반대하는 어떤 실험을 거쳐 자신을 시험해보게 되는 것이다. 이런 모든 것들이 자신을 찾는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자녀가 '기독청년으로서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부모 자신

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평가하는 부모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정체감이 자녀의 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6) 제6단계: 떠나보내는 단계(the departure stage) - 청년기

부모들은 자녀들이 언젠가는 부모 곁을 떠날 것이라는 생각을 해왔지만 이 시기가 되면 그 문제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된다. 부모로서의 성취와 실패에 대하여 검토해 보면서 부모기의 모든 경험들을 평가하고 자녀의 떠남에 대해 준비하게 되며 또한 자녀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을 안고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다.

부모 자신의 삶이 만족스러울 때는 자녀들을 떠나보내고 부부만 남는 빈 둥지와 같은 상황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으나 부모가 지녔던 이미지가 실현되지 못할 때나 자녀가 성공적으로 독립하지 못할 때는 문제가 되기도 하며 부모 자신의 삶의 성공도 무의미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자녀를 떠나보낸 후 부모는 자녀와의 관계이외에 자기에게 존재하는 다른 중요한 관계에 대하여 재검토하게 된다. 홀로된 부모의 경우에는 외로움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나 오랫동안 부부가 함께 살아왔을 때는 부부의 의미 등을 재정의하게 된다.

떠나보내는 단계에서 부모 자녀의 권위적 단계는 엄격한 통제에서 느슨하고 완화된 통제로 변화된다. 이 단계에서 부모는 성장한 자녀와의 분리를 수용해야 한다. 부모가 자신의 부모기에 대한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가장 만족해하는 것은 그들 자녀를 분리된 존재로 수용해왔던 부모들이다.

이제까지 살펴본 것 같이 자녀의 성장에 따라 부모도 성장하고 발달한다. 그래서 자녀를 가진 사람들과 자녀를 갖지 않은 사람들 간에는 많은 것이 서로 다른 것이다. 한 사람이 성장하여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부모기를 보내는 동안 부모는 자녀를 갖기 이전보다 더 책임감을 갖고 수용적이 되며 자기 자신의 삶과 인간 전반에 대해 폭 넓게 이해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2. 부모교육을 중심으로 한 교회교육과정

1780년 영국 글로체스터에서 로버트 레익스(Robert Raikes)에 의해서 시작된 주일학교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기독교교육에 많은 공헌을 하였지만 결정적인 한계

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교회학교의 의도와 관계없이 목회와 교육을 분리시켰고, 가정과 부모의 역할을 약화시켰다고 하는 것이다. 존 웨스트호프가 1976년 '우리의 아이들이 신앙을 가질 것인가?'(*Will Our Children Have Faith?*)라는 책에서 이런 주일학교의 학교식 패러다임이 한계임을 지적하며 '신앙공동체-문화화 패러다임'으로 변화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지만 아직도 이런 저런 다양한 시도만 이루어질 뿐 이러한 교회학교 패러다임에 대한 분명한 대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19]. 한국교회가 교회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음세대 신앙의 대 잇기를 이루기 위해서는 목회와 교육이 분리되지 않고, 가정과 부모의 자녀신앙교육의 역할을 회복하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교회학교가 다음세대 신앙교육의 센터가 되면서 일어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는 교회학교와 가정의 분리이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 신앙교육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함을 망각하기 시작했고, 신앙교육의 주 무대가 가정에서 교회학교로 옮겨오게 된 것이다. 신명기 6:4-9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라고 말씀하며 자녀신앙교육의 주체가 부모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신앙교육기관으로서 교회학교의 정착은 이러한 교육의 기능을 담당함으로서 일종의 부모 역할을 대신하게 된 것이다. 마치 부모가 자녀 교육을 위해서 국어는 국어학원으로, 수학은 수학학원, 영어는 영어학원을 보내는 것처럼 신앙은 교회학교로 보내는 식이라고 할 수 있다. 교회학교가 주로 발달단계에 따라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등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자녀들도 흩어질 수밖에 없다. 주일 아침마다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가족 상호간의 만남과 교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는 성인예배에, 자녀들은 각 자의 교회학교 부서로 흩어지기 때문에 가정의 일체감마저 약화시키는 역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교회의 가장 불행한 또 하나의 이중 구조는 담임목사는 성인목회를 담당하고 교회학교 교육은 교육전도사가 담당하는 것이다. 교회학교는 주로 다음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담임목사의 목회적 대상으로부터는 멀어지고 교육담당 교역자의 주도 하에 교육을 받는 대상이 되고 있다. 목회는 성인을 대상으로, 교육은 다음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교회학교와 교육부는 교회 안에서 하나의 섬처럼 존재한다. 담임목사가 가끔 그 섬에 가서 축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육지와 섬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다. 교회학교의 교육은 대부분의 경우 교회 본당으로부터 분리

19) John H. Westerhoff Ⅲ, Will Our Children Have Faith?, 정웅섭 역, 『교회의 신앙교육』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83).

된 교육관에서 진행된다. 아이들은 교회의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린다. 이제는 담임목사가 다음세대를 책임져야 한다. 담임목사가 주일 저녁에 교회학교 학생 출석수를 확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세대 목회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필자가 수행한 교회학교 위기유발 요인 분석연구 중 교회교육의 위기 해결 방안을 묻는 설문에서 1순위로 나온 응답이 '다음세대를 향한 담임목회자의 관심'(31.4%)으로 나타났다. 교회교육의 위기가 누구의 책임인가에 있어서도 담임목사(28.6%)가 부모(37.4%)보다 낮게 나왔지만 문제를 야기한 목회자(13.1%)를 합한다면 41.7%로서 부모보다도 높은 응답이라고 할 수 있다. 담임목사에게 교회교육 위기의 책임이 있을 뿐 아니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담임목사에게 있음을 보여준다. 전통적으로는 교회학교가 목회의 부수적인 활동으로 인식되어 왔다. 담임목사가 교회학교에 무관심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목회의 핵심 사역으로 인식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는 담임목사 다음세대 목회의 한 복판에 서야 한다. 단지 명목상으로, 조직표 상으로 교회학교 교장의 직함만 갖는 것이 아니라 '다음세대 본부장'이 되어 다음세대 목회 전반을 기획하고 전략을 짜고 이를 실천하여야 한다. 다음세대 신앙계승은 단지 교회학교의 몫이 아니라 가정이 변해야 되고 부모가 새로워져야하기 때문에 담임목사가 전 교회적인 목회로서의 '다음세대 목회'를 구상해야 한다. 어떤 의미에서는 성인목회보다 다음세대 목회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다음세대를 살리는 방향으로 성인목회도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고 이것이 미래지향적 교회의 모습이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분리 현상, 즉, 교회학교와 가정의 분리, 목회와 교육의 분리를 극복하고 다음세대를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는 방안은 담임목사가 중심이 되어 부모를 중심으로 한 교회교육을 실천하는 것이다. 자녀 신앙교육의 무게 중심을 교회학교에서 가정으로, 교회학교 교사에서 부모로 옮기고, 부모가 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는 부모를 위한 평생교육과정을 작성하고 이를 실행하는 것이다. 담임목사가 전체 다음세대 양육의 센터에 서고, 교구목사와 교구가 다음세대 교육의 통로가 되고, 교구 안의 모든 가정의 부모들이 다음세대 양육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종래에는 교구와 교육부가 분리되어 있었고, 교구목사와 교육목사가 분리되어 있었고, 교구목사는 목회를, 교육목사는 교육을 담당하였기에, 다음세대는 교육부서와 교육담당 교역자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이를 바로 잡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다음세대 신앙양육의 주체는 부모이다. 부모가 신앙의 교사가 되어 가정에서 다음세대

신앙의 대 잇기와 양육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미 교육이 세속적 가치관인 입시 이데올로기에 팽배해 있고, 사회 문화와 교육제도, 학교의 교장과 교사, 동료 부모, 자녀들의 친구들이 이러한 가치관에 젖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속적 가치관을 극복하고 신앙적 자녀교육을 통해 기독교적 양육을 할 수 있는 부모가 되도록 부모를 교육해야 할 책임은 담임목사에게 있다. 담임목사의 목회의 우선순위는 다음세대 신앙의 대 잇기에 있어야 하고, 이를 가능케 하는 부모로 세우기 위해 기독교적인 부모교육을 확립해야 하는 것이다. 앞에서 갈린스키의 부모발달단계에서 살펴본 대로 자녀의 발달에 따라 부모도 발달하고, 그 발달하는 부모에게 맞는 부모교육이 계획되고 실천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부모교육은 부모의 전 생애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고, 이것이 목회의 교육적 뼈대를 이루게 될 때 건강한 교육목회를 할 수 있을 것이다.

3. 새로운 부모교육과정의 특징

이러한 부모교육과정은 전통적인 교회의 성인교육과는 달리 다음 몇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는 다음세대 중심의 교육과정입니다. 과거에는 성인교육이 정태적이다. 초점이 성인들에게 머물러 있었고 그들의 시대에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는 동안 다음세대는 사라져갔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향후의 성인교육은 다음세대 지향적이어야 하고, 부모교육과정은 바로 이 특성을 갖는다. 둘째, 부모 중심의 교육과정이다. 부모라고 하는 정체성에 주목하는 교육과정이다. 물론 다른 초점을 지닌 교육도 필요하다. 그러나 부모는 다음세대 신앙교육의 주체이며,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초점을 부모됨에 분명히 맞추는 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가정 중심의 교육과정이다. 교회가 센터가 되지만 가정을 살리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가정에서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작성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가정예배는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가정 자체가 신앙공동체가 되어 자녀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신앙이 형성되어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넷째, 기독교적 교육관 중심 교육과정이다. 이것은 교회, 가정, 학교 연계 교육과정이라는 의미와도 통한다. 우리나라의 부모교육은 미국의 경우와 다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 일본에는 치열한 입시경쟁이 있다. 이 입시가 모든 교육

을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입시로 인해 왜곡된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육의 핵심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에서의 부모교육은 기독학부모 교육과정의 성격을 띠어야 한다. 다섯째, 삶 중심의 교육과정이다. 지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앎 중심의 교육으로는 한계가 있다. 삶을 나누는 교육, 삶으로 가르치는 교육, 삶을 변혁시키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여섯째, 통전적인 교육과정이다. 신앙생활의 다섯 가지 영역인 레이투르기아, 케리그마, 디다케,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를 포함한다. 다르게 표현하면 지식, 신념, 신앙을 통합하며, 지, 정, 의를 통합한다. 일곱째, 하나님 나라 중심의 교육과정이다. 내 자녀만 교육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땅의 교육을 변혁시키는 부모교육이 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이 부모교육은 강한 공공성을 지니고 있고, 왜곡된 교육정책과 교육제도를 변혁시키는 차원으로 나아가야 한다. 기독학부모들이 연합하여 이런 변화를 가능케 하는 기독학부모운동은 이러한 부모교회교육의 외연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부모교육과정은 교육목회의 주된 근간을 형성하는데, 이에 근거하여 부모/가정 중심 교육목회의 10계명을 작성해보면 다음과 같다.

1. 교구가 다음세대 목회의 중심에 되게 하라
2. 담임목사가 다음세대 목회의 중심에 서라
3. 가정을 기본단위로 하라
4. 부모발달단계를 기본 축으로 삼으라
5. 부모를 자녀교육의 주체로 세워라
6. 교회, 가정, 학교(학업)를 연계하라
7. 교구와 교육부서를 일치시켜라
8. 가정예배가 기본 셀이 되게 하라
9. 교회교육을 평생교육과정으로 편성하라
10. 체계적인 부모교육을 받도록 하라

4. 부모/가정 중심 교육목회를 위한 목회구조

부모교육 중심으로 교회교육 새판짜기를 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목회 구조를 다음세대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교구중심의 목회 속에서 다음세대 교

육은 별도의 교육부서가 담당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중대형교회의 경우에는 교육목사가 있고 교회학교 부서마다 교육전도사가 있지만 이들이 주일아침에 아이들을 교육하는 한 시간으로는 다음세대 신앙양육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한 주간, 168시간 전체가 자녀들에게 기독교적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교육은 교구가 교육적 성격을 지니는 것이다. 즉, 교구와 교육의 분리가 아니라 교구가 다음세대 양육의 전면에 나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교구편성을 부모발달단계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은 대부분의 경우 지역중심의 교구편성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물론 여전히 지역 구분이 보다 효과적인 목회구조인 교회는 지역에 따른 교구편성을 지속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교회의 지역 중심 교구 편성은 큰 의미가 없다. 교통의 발달로 지역 구분 자체가 큰 의미가 없어졌으며 같은 지역에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공동체를 형성하는 끈끈한 연결고리가 되지 못한다.

교구를 부모발달단계로 편성할 때는 앞에서 설명한 갈린스키의 6단계 부모발달단계를 고려하되 6년 정도의 나이 차이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모발달단계는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데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는 첫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한다. 왜냐하면 첫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게 되면 그 다음 자녀는 이미 경험한 첫 자녀의 양육방식을 근거로 실천하면 되기 때문이다. 결혼한 신혼부부부터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그룹,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그룹,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그룹, 대학·청년기의 자녀를 둔 부모그룹, 그리고 그 이후의 부모그룹의 5개 부모중심 교구로 편성할 것을 제안한다. 교회 규모가 큰 경우는 이 5개 부모그룹을 한 단계의 부모그룹을 각각 2개 또는 3개 등 더 많은 교구로 편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회의 특성에 따라 20대가 많은 경우, 30-40대가 많은 경우에는 자녀의 연령을 보다 세분화한 교구 편성도 가능할 것이다.

교구편성은 교회학교 교육부서와 직접적인 연결이 이루어진다. 자녀 연령에 따른 교구는 각각 그 연령의 교회학교와 연계가 되어 교육담당 교역자와의 협력 속에 그 교구의 다음세대 목회를 담당하는 센터가 되는 것이다. 바로 교구와 교육의 통합이 이루어져 다음세대 목회에 집중하게 되는 구조인 것이다. 부모교육을 중심으로 한 교구와 교사교육을 중심으로 한 교회학교는 교회의 다음세대 목회를 위한 양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부모가 믿는 가정의 경우는 가정에서의 자녀신앙교육이 보다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부모가 믿지 않는 가정 또는 자녀를 신앙적으로 양육하기 어려

운 가정의 자녀에 대해서는 교회학교가 보다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자녀신앙교육의 무게중심이 교회에서 가정으로 옮겨지게 되면, 교회학교는 보다 은사개발, 제자훈련, 진로교육, 공동체 교육 등 가정에서 충분히 다룰 수 없는 영역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고, 전체 다음세대 교육에 공헌하게 될 것이다. 부모/가정 중심 교육목회에서 특별히 관심을 지녀야 할 교육활동이 있다.

1) 가지(가정의 지성소) 운동: 가정에서 드려지는 가정예배는 가정의 지성소로서 다음세대 교육의 가장 기본 단위가 된다. 가정에서의 자녀 신앙교육은 기본적으로는 가정예배와 대화의 시간으로 구성되는데 전체 커리큘럼에 따라 가정예배를 진행하며, 대화도 제시된 일정에 따라 그 주제가 정해지는데 가정의 상황에 맞게 융통성 있게 적용될 수 있다. 물론 가정예배 교재와 대화를 통한 자녀교육 교재도 제공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부모를 위한 입문교육: 부모들이 가정에서 자녀신앙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입문교육에 참여하도록 요청받는다. 부모를 위한 입문교육은 8주 동안 이루어지는데, 〈기독학부모교실〉을 사용한다. 부모들은 자녀 연령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나누어지며, 대상 부모들의 상황에 따라 평일 오전 또는 토요일, 주일에 개최될 수 있다. 기독학부모교실은 자녀의 학업문제를 포함한 전인적인 자녀 신앙교육을 위한 최적으로 교재라고 할 수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독학부모는 누구인가, 2. 기독학부모의 교육보기, 3. 기독학부모의 자녀 이해, 4. 여호와 경외 교육, 5. 성품 교육, 6. 학업과 은사 이해, 7. 기독학부모와 학교, 8.기독학부모운동과 하나님 나라.

3) 교구목사 교육과정: 교구가 다음세대 목회의 센터가 되기 위해서는 교구목사들이 부모교육을 담당하여 그 교구의 부모들을 자녀신앙 양육자로 세우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교구목사가 이런 역할을 감당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교구목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담임목사님과 교구목사가 함께 '가정 중심의 교육목회' '다음세대 중심의 교육목회'를 세울 수 있는 연수에 참여하여야 한다. 이 연수는 방법론만이 아니라 이 방향의 교육목회에 대한 확신과 헌신을 갖도록 돕는 부분이 포함되어야 한다.

4) 담임목사가 다음세대 목회의 중심: 한국교회의 가장 불행한 이중 구조는 담임목사는 성인목회를 담당하고 교회학교 교육은 교육전도사가 담당하는 것이다. 이제는 담임목사가 다음세대를 책임져야 한다. 담임목사가 주일 저녁에 교회학교 학생 출석수를 확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세대 목회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전통적으로는 교회학교가 목회의 부수적인 활동으로 인식되어 왔다. 담임목사가 교회학

교에 무관심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목회의 핵심 사역으로 인식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는 담임목사 다음세대 목회의 한 복판에 서야 한다. 단지 명목상으로, 조직표 상으로 교회학교 교장의 직함만 갖는 것이 아니라 '다음세대 본부장'이 되어 다음세대 목회 전반을 기획하고 전략을 짜고 이를 실천하여야 한다.

5) 교회-가정-학교(학업) 연계 교육 센터: 부모발달단계에 따른 부모교육 중심의 교육목회를 지원하는 가칭 '교육목회지원센터'가 요청된다. 부모중심의 교구에서 다음세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부모교육, 교재개발, 교육지원 등 다양한 사역을 감당할 센터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목회지원센터는 교회의 교구와 교회학교가 효과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도우며, 전체 교회의 목회가 다음세대 교육목회가 되도록 리더십을 발휘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교회 밖에서 한국교회 전체가 이러한 부모/가정 중심 교육목회가 이루어지도록 기획하고 지원하는 '한국교회 교육목회지원센터'의 역할이 필요하다. 현재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가 이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만 보다 활발하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기구가 요청된다. 교단이 이러한 부모/가정 중심 교육목회를 받아들인다면 교단의 구조 안에 설치할 수도 있을 것이다.

V. 나가는 말: 교회교육의 패러다임 전환

한국 교회와 기독교의 위기는 기존의 방식을 '더, 열심히'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다음세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창의적인 접근이 요청된다. 가장 창의적인 패러다임은 '왜?'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된다. '왜 주일학교여야 하는가?' '왜 분반공부여야 하는가?' '왜 교육부서여야 하는가?' 끊임없이 왜를 질문하면서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 전통이나 관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의도'(original intention)를 회복해야 한다.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본래 의도, 교회를 주신 하나님의 본래 의도, 부모를 향한 하나님의 본래 의도를 회복해야 한다. 한국교회가 새로운 부모교육과정을 축으로 하는 교회교육의 새판 짜기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다음세대 신앙의 대 잇기는 오늘날 왜곡된 교육현실에 대해 처절하게 절망하고, 이 속에서 방황하는 다음세대를 향한 깊은 애통함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대안을 찾을 때에만 회복될 수 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교육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한다.

【논 찬】

논찬2-1:
『가정 친화적 교회교육의 방안』에 대한 논찬

이상범 목사
(한국성서유니온 광주지부장)

1.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

본 연구의 서두에 제시된 한국사회의 탈종교화 현상과 교회학교의 감소 현상에 관한 통계자료는 교회학교에서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중에 겪는 교육적 소진이나 패배감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여전히 교육이 가능한가?'라는 고민을 가진 사람들은 점점 늘어가고 있다. 가정, 교회, 선교단체, 학교 등 교육과 관련한 정체성을 가진 공동체와 기관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 중 적지 않은 수가 교육의 무의미함에 시달리고 있다. 교육은 과잉인데, 교육의 의미는 빈곤해지고 이탈자가 갈수록 늘어가는 현상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기존의 교육 패러다임에 종말을 고해야 할 시점이 찾아온 것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만약 그러하다면 기존의 패러다임에 덧칠하는 정도의 노력으로는 해결이 어려울 것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 새 길을 만들어야만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다. 본 연구는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교육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패러다임의 문제에 주목하게 하는 것, 기존의 패러다임을 성찰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도전하는 것은 본 연구의 큰 기여점이다. 특정 패러다임의 시효가 만료되어 발생하는 위기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일어날 때 비로소 기회가 될 수 있다. 이제 우리의 고민은 패러다임이어야 한다.

2. 부모교육의 중요성

'요즘 아이들이 문제이다'라는 말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통용되는 말 중 하나이다. 이 말은 시대와 문화의 차이를 넘어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일반적인 시선을 보여준다. 교육자의 시선이 교육의 대상에게 집중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

나 모든 문제의 원인을 아이들에게 돌리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 교육자가 자기 성찰과 변화의 힘은 상실한 채 아이 탓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의 길을 걷다 보면 문제 아이의 가정에는 문제 부모가, 문제 학생 뒤에는 문제 교사가 있는 경우를 적지 않게 경험하는 것이 사실이다. 다음 세대 교육의 위기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다음 세대 교육의 위기 이면에는 부모의 위기가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시선은 다음 세대보다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부모를 향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교회교육 위기 요인 순위'에서 순위와 비중 면에서 '부모'에게 큰 요인이 있음을 밝힌다. 이는 의미 있는 지적이다. 다음 세대 교육을 고민하는 교회가 힘과 노력을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할 대상이 아이들이 아니라 부모여야 함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부모가 아이들에게만 시선을 두고 아이들을 변화시킬 교육적 묘책을 찾기 위해 애를 쓰고 있지만, 정작 부모인 자신이 아이에게 투사해온 욕망과 가치는 성경에 비추어 교육적으로 적절한지 충분히 숙고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현실을 생각하면 다음 세대 교육의 실패는 부모 교육의 실패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모의 변화는 단독적으로 일어나기 어렵다. 그것은 교회의 변화와 지지 속에서 가능하고 그것은 부모의 변화를 위해서는 교회의 변화가 필수적임을 알려준다. 그리스도인 부모가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 교회에 출석하여 아이를 교육 부서에 맡기는 위탁자로 살 것인지, 교육의 주체가 되어 가정교육과 교회교육의 연속성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것인지의 여부는 부모 자신의 결단을 넘어 교회적 차원의 결단을 요청한다.

3. 부모 중심의 교육목회로의 전환

아이마다 신체 성장시간표가 다르다. 부모는 아이의 고유한 신체 성장시간표에 맞추어 영양분을 공급하고 활동과 환경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아이들이 신체 성장시간표뿐만 아니라 자기만의 고유한 내적 성장시간표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부모는 아이만의 신체 성장 속도를 기억하고 대응하듯이 아이의 내적 성장 속도와 시기별 과제를 잘 읽어내어 지혜롭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아이의 고유한 결을 존중하는 교육은 획일화된 교육 과정이 아닌 맞춤형 교육 과정이 있을 때 가능하다. 본 연구는 아이에 대한 맞춤형 교육 과정이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은 바로 가정이고, 가장 좋은 교사는 부모임을 강조한다. 아이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을 넘어 삶의 경험 자체가 의미 있는 배움의 기회가

되도록 도울 수 있는 최고의 교사도 부모이다. 가르침뿐만 아니라 신뢰와 존중의 관계 경험과 문화를 통해 신앙과 인격을 형성하기에 가장 좋은 교육적 환경은 가정-교회, 부모-교사의 파트너십이 이루어진 부모 중심의 교회목회이다. 교회는 이러한 부모 중심의 교육목회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것은 부모를 교회교육의 파트너로 양육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 제공, 교회 구조와 사역자의 역할 변화, 교회론과 목회론의 패러다임 전환 등이 일어나야 함을 의미한다.

4. 제언과 질문

간략하게나마 살펴본 바에 의하면 『가정 친화적 교회교육의 방안』은 첫째, 다음 세대 교육의 위기는 패러다임의 문제라는 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일어날 때 다음 세대 교육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둘째, 다음 세대 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부모에게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부모가 자녀교육의 주체로, 교회교육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함을 일깨우고 있다. 셋째, 부모 중심의 교육목회로의 전환을 통해 교회가 부모와 교육적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맞춤형 교육, 부모와 자녀의 동반성장, 공동체적 교육, 앎과 삶의 통합 등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실현해내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가 다음 세대 교육의 위기 앞에 서 있는 한국교회를 향한 진지한 제안임에도 불구하고 부모 중심의 교육목회가 담아내지 못하는 변수와 변화에 대한 저항이 우리의 현실에 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 과제를 풀어나가기를 기대하며 아래의 제언과 질문을 드린다.

첫째, 부모가 교회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조부모 가정, 언어가 다른 다문화 가정, 믿지 않는 가정의 자녀들은 부모 중심의 교육목회에 수혜자가 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부모가 어떤 이유로든 교회에서 제시하는 교육을 소화해내기 어려운 사정일 경우에도 해법은 쉽지 않다. 그래서 조부모의 격대 교육 실천방안, 대부/대모 제도 등을 통해 부모 중심의 교육목회라는 패러다임에서 소외되기 쉬운 아이들을 교육의 울타리 안으로 포용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패러다임의 취약성을 보완해 나갔으면 한다.

둘째, 부모의 저항에 대한 대응방안이다. 한국의 부모들은 아이의 입시교육에 있어서

매우 적극적인 주체로서 살아가고 있다. 반면 교회교육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경우가 많고 아이의 나이가 대학 입시에 가까워질수록 교회교육에 대한 소홀함이 더욱 심각해지는 경향이 있다. 부모의 욕망이 주님의 왕국과 주님의 의보다 입시 왕국과 그 왕국에서의 승리를 더욱 지향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입시경쟁체제가 형성시킨 부모의 욕망을 변화시키지 못한, 아니 오히려 더욱 부추긴 교회의 책임이 크다 하겠다. 교회와 그리스도인 부모의 현주소를 생각할 때 교회가 부모를 그리스도인 부모로 교육하여 교육의 주체로 세우려는 시도는 여러 면에서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좋은 뜻으로 세워진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결국 부모의 욕망에 의해 무릎을 꿇고 본래의 정신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좋은 정신을 가진 학교도 이겨내기 어려운 것이 부모의 욕망이다. 부모 교육은 치열한 싸움이다. 부모 교육을 위한 커리큘럼을 만들고 그 과정을 이수하면 수료증을 발급하는 정도로 부모가 변화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큰 오산일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이미 고민해오셨을 줄 안다. 조언이나 해결책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셋째, 교회 차원의 대대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새로운 패러다임에 동의하는 일부 부모와 교사들이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큰 변화가 오지 않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그것만큼 서글픈 일도 없을 것이다. 옳은 일이고 해야 할 일이라면 다수의 공감과 참여를 얻지 못할지라도 지속해나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부모 중심의 교육목회에 뜻이 있는 부모나 교사가 자신의 활동 반경 안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일을 알려주는 일은 중요하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진정성 있게 실천하는 사람들을 통해 인식이 확산되고 마음이 움직이고 참여하는 사람들도 생기기 마련이다. 이러한 아래로부터의 변화가 어느 날 제도와 정책이 변화되는 순간을 맞이할 때 중요한 모멘텀이 생기는 경우를 기독교 역사에서 적잖게 발견할 수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인 부모와 교사가 돌아가서 아이들을 만나 새로운 상호작용을 만들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질서를 전수하며 교육목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미시적 실천들을 제안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논 찬】

논찬2-2:
『가정 친화적 교회교육의 방안』에 대한 논찬

이송용 선교사
(전 몽골국제대학교 조교수, 현 처치홈스쿨운동 비서)
www.churchhomeschool.org

Ⅰ. 현실 분석의 적절함

박상진 교수님의 탁월한 발제에 깊이 공감합니다. 무엇보다 이 발제는 한국교회 교회학교 교육의 위기를 통계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진단하였는데, 이는 문제 인식에 있어서 우리에게 매우 훌륭한 출발점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종교인 인구 비율이 감소 추세에 있으며, 교회학교 학생들의 숫자 역시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그 감소 추세가 우리나라 출산율 하락폭보다도 10%가 더 심하다는 날카로운 분석은 우리로 하여금 더 큰 경각심을 갖게 합니다. 더불어, 미래 예측 도구를 사용하여 앞으로 교회학교 학생들의 수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조심스레 예측해 본 일 역시 우리 모두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의미 있는 작업이었습니다.

또한 이 발제는 교회학교 위기 요인에 대해 설문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스스로 '부모 요인'과 '학교 요인'을 가장 주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으며, 이 위기의 책임에 대해서는 '부모'과 '목회자'를 지목하고 있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 역시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지요. 왜냐하면, 신명기 6장은 부모에게 자녀 교육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목회자 역시 영적인 부모의 역할에 해당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

니다. 다시 말하면, 이 훌륭한 발제의 제목처럼, 우리가 가정 친화적인 교회교육, 가정과 교회 중심의 다음세대 교육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 변화의 주체는 부모와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Ⅱ. 합당한 해결 방안 제시

이 발제의 탁월함의 방점은 현실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그에 이어 매우 적합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 교회, 학교(학업)가 삼위일체가 되어야 한다는 통찰력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적 통전적(holistic)/전인적 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핵심적 철학이 되어 줍니다.

특별히, 그 철학이 실재가 되기 위해서는, 존 웨스트호프가 제시한 공동체 중심의 교육 유형처럼, 공동체(교회)가 다음세대의 문화를 주도하는 교육(church-schooling)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지적인 추구(히:*yada*)는 삶과 통합된 것이어야 한다는 이해에 대해, 이루 표현할 수 없는 동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발제에서는 그 실천 사례로서 말레이시아의 가정 친화적 교회와 D6운동을 제시하였는데, 우리가 적극 배워 보아야 할 모델들이라 여겨집니다. 위 모델들처럼, 우리가 기존의 교사 중심의 교회학교 교육 그리고 성인 중심의 목회 패턴을 넘어서서, 가정이 다음세대 교육을 주도하고, 교회가 다음세대의 목회의 중심을 두는 방향으로 다음세대 교육 체계를 재편성하여 실천해 나간다면, 현재 직면하고 있는 교회학교의 위기 문제는 반드시 극복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제게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Ⅲ. 몇 가지 첨언

공을 들인 학문적 연구와 더불어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현실적으로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인가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풀어낸 이 발제를 볼 때, 누구나 무릎을 탁 치며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논찬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제가 부득이하게 몇 가지 사안을 언급해야 한다면, 그리할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첫째로, 위기 요인 분석의 결과를 보면 가장 주요한 두 가지로서 '부모 요인'

과 '학교 요인'이 도출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발제의 주제가 '교회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에 학교교육의 문제성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노력에 대한 내용은 미처 다 다룰 수 없었을 것임을 충분히 이해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학교 요인'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서 다음세대 교육의 방향성을 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물론, 교회와 부모 입장에서 볼 때 '학교 요인'은 상당 부분 통제할 수 없는 변수로 여겨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그 변수는 일단 제쳐 두고 다른 요인들을 바꿔 봄으로서 대안을 찾아보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제 2요인인 '학교 요인'은 사실상 제 1요인인 '부모 요인'에도 상당한 제약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교 요인'에서 오는 위기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매우 근본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1)]

둘째로, 발제에서 사례로 들어 주신 말레이시아의 가정 친화적인 교회나 D6 운동의 열매가 어떠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누락되어 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그러한 개혁과 노력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내용이 추가된다면, 발제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나도 그 모델들을 도입해보고 싶다'는 열망이 자연스럽게 생겨날 것입니다.

셋째로, 한국 교회 안에 가정 친화적인 교회교육이 실천되어 운영되고 있는 모델이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발제에서는 우리나라의 교육적 특성으로 인해 해외의 부모 교육 교재를 받아들이는 일에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사례는 외국의 사례만 제시되었기에 다소 호소력이 약하게 느껴집니다. 우리나라에도 어떤 형태로든 가정 친화적인 교회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모델들이 분명 있을 터인데, 그런 모델들이 소개된다면, 다른 교회들에게도 가정 친화적인 교회교육이 확산될 수 있는 효과적인 동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발제자께서 제안하신 새로운 부모교육 과정의 일곱 가지 특징과, 부모/가정 중심 교육목회의 10계명을 일부분이라도 실천하여 열매 맺고 있는 교회가 있다면, 저부터 달려가서 배워오고 싶습니다.

Ⅳ. 사례 하나 추가

이 발제가 제시하고 있는 다음세대 교육의 방향성을 그대로 실천하여 열매

1) 전성은, 『왜 학교는 불행한가』

맺고 있는 모델이 하나 더 있기에 이번 포럼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그 모델이 저희 스스로의 모델이기에 이를 직접 소개하기에는 약간의 쑥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허종학 장로님께서 저를 논찬자로 세우신 데에는, 이 발제와 저희 사역과의 연관성을 염두에 두신 점도 있다는 것을 알기에, 저희를 내세우고자 함이 아니라, 들으시는 분들의 선택지를 넓혀 드린다는 의미에서 처치홈스쿨의 모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 학교 요인 통제의 중요성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학교 요인(또는 공교육 요인)은 부모 요인에도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학교로부터 들어오는 영향력을 통제하지 않은 채, 그리스도인 부모가 현재보다 더 나은 기독부모가 되기를 기대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시간의 양으로만 본다면, 대부분의 기독부모들이 공교육(+공교육을 보충하는 사교육)에 90% 이상의 자녀교육을 위탁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교회들은 교사 중심의 교회학교교육, 부모 중심의 교회학교교육을 불문하고 10%의 시간만을 확보해서 싸워야 하는 구조적으로 불리한 형국에 놓여 있습니다. 만일 제가 이 전쟁을 지휘하는 지휘관이라면, 저는 저의 군대를 일단 안전지대로 철수부터 시키고 볼 것입니다. 적군이 아홉 발을 쏘는 동안 아군은 한 발만을 쏴야 하는 규칙으로 전쟁을 치른다면 이는 시작부터 불리한 전쟁이 되며 결과적으로 아군의 피해는 말로 다할 수 없이 극심할 것임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2. 그간의 교회들의 노력과 실패로부터 타산지석을 삼아야

앞의 발제에서 제시된 모델 중의 하나가 왜 말레이시아의 교회였는가를 탐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곳은 이슬람 국가로서 기독교 활동이 제한적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무슬림 국가에서 교육 사역을 해 보았기에, 짧은 소견이나마 예상을 해 본다면, 그 곳은 공교육이 이슬람 중심의 철학을 따르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가 더 적극적으로 뭉쳐서 기독교 교육에 헌신하는 분위기가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다음세대 교육을 스스로 챙기지 않을 수 없다는 인식이 기독부모들 사이에 기본적으로 공유되기 쉬운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공교육에서 최소한 다른 종교를 가르치고 있지는 않으니 우리의 자녀들은 괜찮은 것일까요? 물론 그렇지 않지요. 우즈벡, 카작에서 20년 가까이 사역을 하신 이민교 선교사

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 “저희 가정이 선교사로서 무슬림권에 살면서 자녀들을 공립학교에 보내지 않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어요. 거기서 이슬람교를 가르칠 테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세속 공립학교에서 자녀들을 빼 오는 일이 보다 쉽게 생각되지 않을까요? 분명 거기서는 또 다른 종교인 '세속주의'를 가르치고 있지 않은지요?”[2)]

저는 우리의 교회들이 다음세대 교육에 더 많은 정성을 쏟아야 한다는 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누군가 “우리가 그렇게 더 많은 정성을 쏟았을 때 그에 합당한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가“를 물어 오신다면, 그에 대한 저의 대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입니다.

후자는 우리가 공교육에 자녀들을 맡겨 놓은 채로, 교회학교 교육과 가정에서의 교육에만 변화를 주어 열심히 뛸 때입니다. 이미 수많은 교회와 신앙의 선배들이 교회학교 교육과 방과후 교육 등에 엄청난 헌신을 쏟아 부은 전례가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은 결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손을 쓸 수 없는 영역이 너무나 컸기에 그들의 헌신은 매우 적은 영역에서만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을 뿐입니다. 공교육에 자녀를 보내면서 신앙교육을 시킨 교회들에게서 80~90%의 자녀 복음화율을 기록했다는 사례를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3. 이전 세대의 성공한 사례로부터 배워야

그런데 있습니다. 80~90%의 자녀 복음화율을 기록하는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공동체를 이루어 자녀를 그 공동체 안에서 교육하고 길러내는 신앙 공동체들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유대인 공동체이지요. 그리고 그리스도인 공동체 중에서는 아미쉬 공동체, 브라더 호프 공동체, 홈스쿨 공동체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들은 자녀들이 태어나면 놀랍게도 (아님 당연하게도) 그 중의 80~90%가 그 공동체의 신념에 정착합니다.

우리나라의 홈스쿨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홈스쿨은 이미 2세

2) 이송용, 정해영, 『교육의 출애굽 (2), 우리 아이 그의 아이』, 낮은울타리 2018년6월호

대로 접어들었는데, 홈스쿨 1세대로 자란 자녀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다시 홈스쿨로 자신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홈스쿨로 자라난 자녀가 신앙과 교회를 져버렸다는 사례를 접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사례들을 감안한다 하여도 기독 신앙 정착률이 90%를 선회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4. 홈스쿨의 높은 문턱 문제

다만 홈스쿨은 그 시작의 문턱이 너무나 높아 보인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적인 능력과 경제적인 능력 그리고 영성이 어느 정도 갖춰진 일부 부모들에게 이 일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일로 다가오지만, 스스로 공교육을 받고 자라난 대부분의 기독부모들에게 이 일은 자신의 능력 밖의 일로만 느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공교육의 쓴 열매들과 맞물려서 기독홈스쿨을 결정하는 가정들이 꾸준히 배출되고 있습니다.

5. 교회 공동체로 이뤄내는 처치홈스쿨[3)]

처치홈스쿨은 서너 가정이 자기 교회에 모여서 공동체로 자녀들을 길러내는 교회가정학교입니다. 자녀들을 공교육에 보내지 않고, 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교회에 모여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도우며, 홈스쿨 교육 공동체를 일궈 갑니다. 일주일에 월수금 세 번은 교회에 모이고, 나머지 화목토는 가정에서 홈스쿨을 합니다. 교회는 그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돕습니다. 교인들 중에 자원하는 분들이 있어 부모들과 함께 선생님이 되어 주기도 하고, 부엌 봉사나 재정으로 돕기도 합니다.

처치홈스쿨에서는 그야말로 가족 친화적인 교회교육이 되어집니다. 부모가 자녀의 영, 혼(지,정,의), 육을 스스로 챙기며 자녀와 함께 성장하는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들이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더불어 처치홈스쿨 가정들은 교회의 모든 일정과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자녀들이 주중 교회 예배에 더 적극 참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김장을 담그면 모든 부모 자녀들이 붙어서 그 일을 돕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부모와 자녀

3) 이송용, 정해영, 『지금 키워라 영적인 아이』, 넥서스크로스

들이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지요. 교회 입장에서도 주중에 부모들과 자녀들이 교회를 채우게되니 교회가 더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큰 재정이나 지나친 행정적 노력을 들이지 않고 기독교교육의 이상을 실천할 수 있으니, 교회로서도 매우 보람된 일이지요.

기존에 기독교학교의 등록금이 너무 비싸서 자녀를 입학시킬 수 없었던 부모들, 혼자 홈스쿨 하기에는 영 자신이 없었던 부모들도 처치홈스쿨을 결정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서로를 돕고 이끌어 줍니다. 지금까지 광주에 3개 교회, 익산, 대전, 울산, 사천의 각 1개 교회에서 처치홈스쿨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의 교회에도 처치홈스쿨이 시작되기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지체들이 전국 각지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Ⅳ 결언

오늘 박상진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신 가정 친화적인 교회교육의 이상이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들에 이뤄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자녀 세대들이 우리와 함께 손잡고 하나님나라를 멋지게 이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이를 위해 저희 처치홈스쿨도 교회들을 도울 일이 있다면, 열심히 돕겠습니다. 귀한 발제를 해 주신 박상진 교수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 시간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 처치홈스쿨 문의 및 견학 신청**

홈페이지 : www.churchhomeschool.org

연락처: 이송용 형제 010-2802-5724 pipokoko@gmail.com

고정석 전도사(성산처치홈스쿨교감) 010-2355-0291

mathko12358@gmail.com

사진으로 보는 4/14윈도우운동

–세계변혁운동의 한 트랙으로서의 다음세대 운동





[2009.9월 4/14 Window Global Summit I , New york]

[2010.9월 4/14 Window Global Summit II , New york]



[2011. 9월 4/14 Window Global Summit III, Singapore]



[2010.5.6~7 4/14 Window Global Conference,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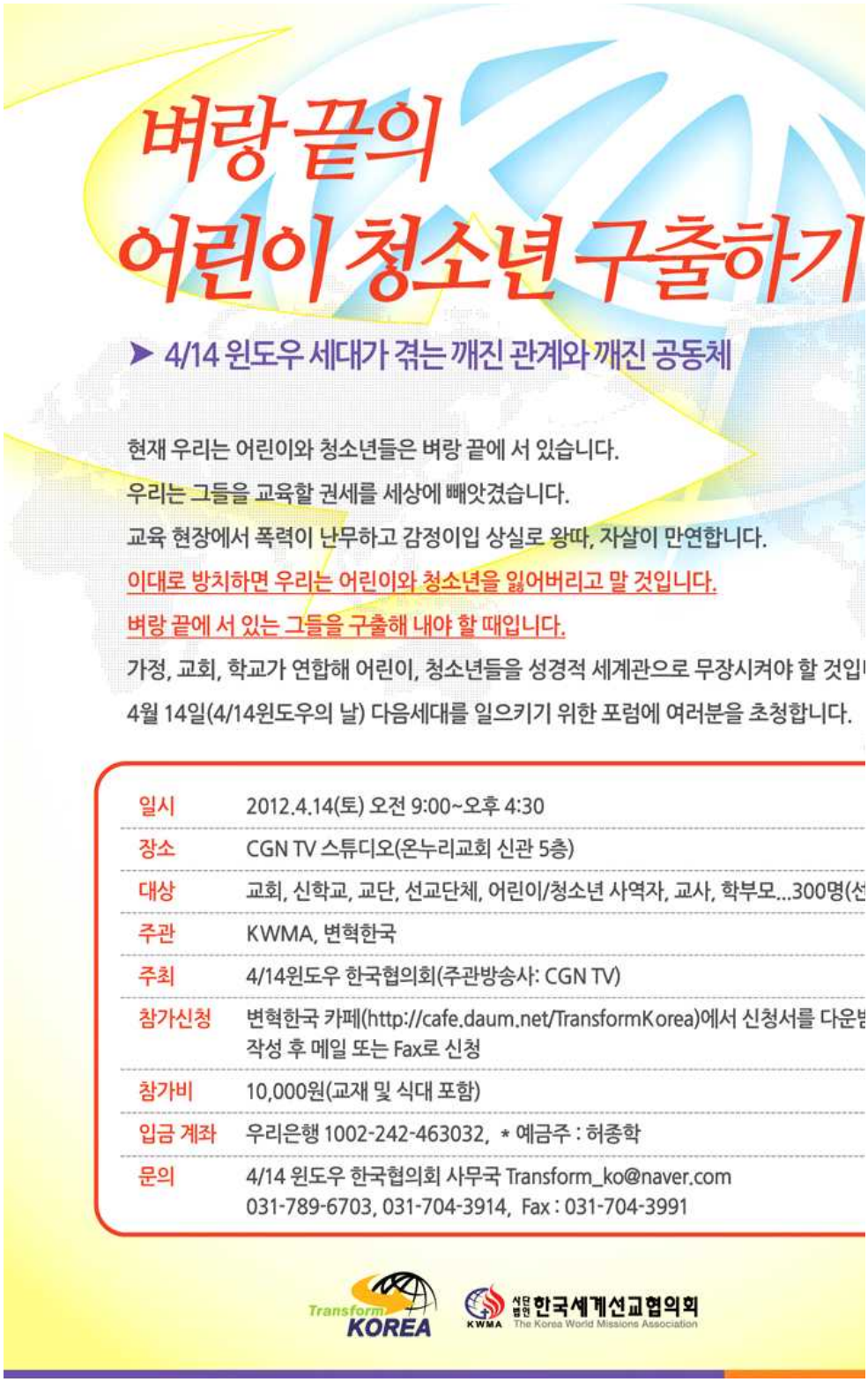




[2012.6.26-27; 4/14 Window 동아시아 컨퍼런스, 할렐루야교회]



[2012.6.28 변혁한국 컨퍼런스, 할렐루야교회]



[2012.4.14 4/14 Window Forum II]

4/14 Movement

Raising Up Christ Followers from 4/14 Window to Transform the World

In the last days, God says, I will pour out my Spirit on all people. Your sons and daughters will prophersy, your young men will see visions, your old men will dream dreams. Acts 2:17

Children & Mission

Recognizing Children and Youth as Strategic Partners in Mission

"어린이 청소년을 선교의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라!"

4/14 Window
Missiology Conference

26-28 February 2013
Seoul, South Korea



[2013.2. 26~28 4/14 윈도우 선교학 턴퍼런스, 할렐루야교회]

4/14 Window KOREA Transform KOREA KWMA 한국세계선교협의회 The Korea World Missions Association



4/14윈도우포럼 III

세상을 변화시킬 새로운 세대를 4/14윈도우에서 일으켜라

"소중한 생명 살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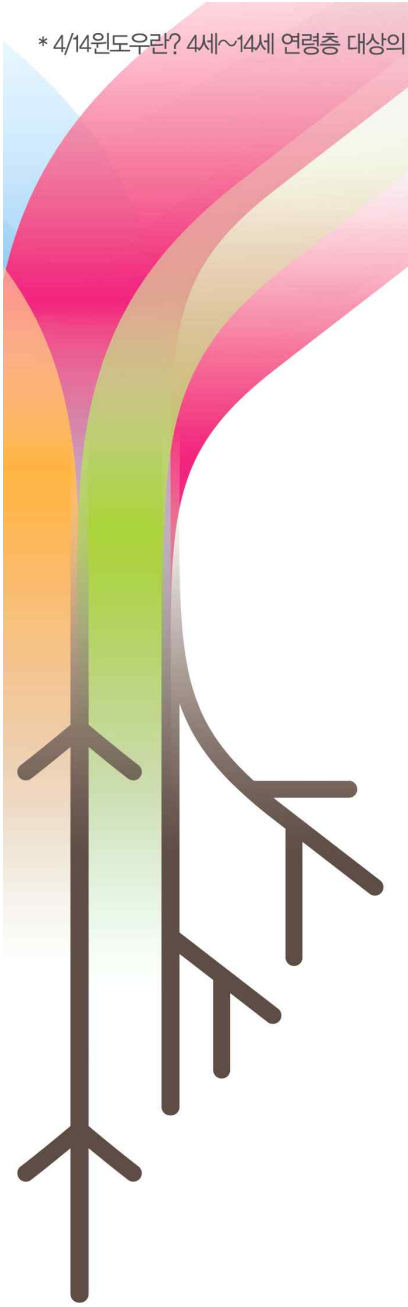
우리의 어린이 청소년들의 생명은 벼랑 끝에 서 위태롭습니다.
자살, 학교 폭력, 왕따, 각종 중독(특히 미디어와 게임) 등 생명을 경시하는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해석을 통해 해결책과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우선 교회와 교단, 선교 단체의 교육에서부터 생명 존중의 풍토를 확립한 후, 이를 각급 학교와 사회로 광범위하게 전파할 필요가 있습니다.
4월 13일(4/14윈도우의 날 전일)에 열리는 이번 세 번째 포럼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주제	소중한 생명 살리기
부제	우리의 희망, 차세대의 생명을 살립시다
일시	2013.4.13(토) 오전 9:30~오후 4:00
장소	CGN TV 스튜디오(온누리교회 서빙고 성전 신관 5층)
주관	변혁한국,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주최	4/14윈도우 한국연합
참석자	각 교단 교육담당 목사, 4/14윈도우 한국연합가입기관, 관심 목회자, 교사, 학부모 등
참가신청	4/14윈도우 한국연합 카페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메일 또는 Fax로 신청 (http://cafe.daum.net/windowkorea)
참가비	10,000원(교재 및 식대 포함)
입금 계좌	외환은행 630-007067-532, 예금주 : 국제사랑의봉사단
문의	4/14윈도우 한국연합 사무국, E-mail : Transform_ko@naver.com 전화 031-704-3914 | Fax: 031-704-3991 윤주일 팀장 010-6336-2237 | 박유정 간사 010-3329-5965

[2013.4.13 4/14 Window Forum III , CGN TV]

* 4/14윈도우란? 4세~14세 연령층 대상의 변혁운동을 의미하는 전략적 선교 개념입니다.



ROOTED &
RELEASED

4/14윈도우 포럼 IV

세상을 변화시킬 새로운 세대를 4/14윈도우에서 일으켜라!

예수님의 성품으로 다음세대를...

신자유주의, 다원주의, 포스터모더니즘, 권위의 무너짐, 자살, 왕따...
'나'가 중심이 되어버린 다음세대에게 하나님과의 친밀함,
예수님의 성품을 가르쳐야 우리 사회가 행복해집니다.
–"4/14윈도우의 날"에...

일시 | 2014.4.14(월) 오전 9:30~오후 5:00
장소 | 할렐루야교회(분당) 201호
대상 | 어린이, 청소년 사역자(교역자, 선교사, 교사), 학부모 및 관심자
등록 | Daum 카페 "Transform Korea"(변혁한국), 또는 "4/14윈도우운동" / QR코드 이용(왼쪽하단)

프로그램 안내

[주제 발제]

1. 성품이란? 다음 세대를 왜 예수님의 성품으로 양육해야 하나?
   _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2. 다음세대 성품 훈련, 어떻게 해야하나? _문병선 목사 (IBLP KOREA)

[선택 특강]

1. 성품교육에 있어서 사역자의 역할_서석만 목사 (여수새중앙교회 담임)
2. 당신도 칭찬의 대가가 될 수 있다_박판기 목사 (월드리더스쿨 대표)
3. 갈등을 해결하는 성품_여삼열 목사 ((사)한국피스메이커 연구위원)

주최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 The Korea World Missions Association / Transform KOREA 변혁한국

주관 4/14 window KOREA 4/14윈도우한국연합 / 국제사랑의봉사단 Loving Concern International

후원 CTS 기독교TV / erom / Hallelujah 할렐루야교회 Hallelujah Community Church

[2014.4.14 4/14윈도우 포럼 IV – 할렐루야교회]



[2014. 10. 6 4/14윈도우포럼 V 포스터 (크리스마스 파티 전도)]

[2015.10.26 4/14윈도우포럼 VII (크리스마스 파티 전도)]



[2014.10.10-16 ; 4/14윈도우 Best Practice Summit, 뉴욕프라미스교회]



[2017.11.10-12 ; New York 4/14 Window Conference, 뉴욕프라미스교회]



[2015.4.13 4/14윈도우 포럼 VI – 할렐루야교회]



[2015.10.12.-16; TW2020 Global Leadership Summit IV, Seoul Korea]



[2016.10.24-27; TW2020 Global Leadership Summit V, Bangkok, Thailand]



[2017.10.31-11.3; TW2020 Global Leadership Summit VI, Guayaquil, Ecuador]



[2018.3.14.-17; 4/14 Window Global Summit V, Singapore]

4/14윈도우포럼Ⅷ

> 4/14윈도우란 4~14세 연령층을 선교의 파트너로 인식하며 그들을 일으키는 운동입니다

다음세대와 미디어 "선용방법 제시"



- 오늘날 미디어가 다음세대에 무엇인지? 그 유익과 폐해를 분별.
- 다음세대가 미디어를 로마대로처럼 복음의 통로로 선용하도록 인도.
- 신 자유주의, 다원주의, 권위의 무너짐, 자살, 왕따, 게임과 스마트폰 중독, 저출산, 교회학교의 감소의 시대에 '나'가 중심이 되어가는 다음세대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역자들의 특별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4/14윈도우의 날'에--(매년 4월 14일)

2016. 4.11(월)

오전 9시 30분 – 오후 5시 @ 양재동 횃불선교센터 기쁨홀

TIME	강 사	주 제
제1부 오프닝	장순흥 총장 (한동대학교)	다음세대 4/14윈도우운동 비전선언
제2부 현상의 진단과 종합	안종배 교수 (한세대학교)	다음세대 미디어문화의 문제점과 기독교적 대안
특별초청공연 (점심식사 후)	헤리티지 팀	2015년 불후의 명곡 우승팀 'Oh~ Happy Day'등 특별 초청공연
제3부 선용방법 제시 –적용과 실제	Jeremy West (OneHope 아태본부장)	미국 어린이 / 청소년 미디어 대책 Protection of U.S. Children / Youth from Media
	이상호 PD (SBS)	인본주의적, 사탄적 문화(음악, 영화)와 다음세대 보호대책
	전종천 대표 (e미디어 워치)	스마트 미디어가 4/14 윈도우에 미치는 영향과 교회, 가정의 대처방안
	박영목 대표 (Almighty Bible)	미디어의 기독교적 적용과 실제

주 최 KWMA 한국세계선교협의회 The Korea World Missions Association / Transformation KOREA 변혁한국

주 관 4/14 window KOREA / Nahnlah 함일루이교회

후 원 CTS기독교TV / 국민일보 / OneHope / 기독교선교횃불재단 KOREAN CENTER FOR WORLD MISSIONS

등록신청 온라인 등록처 (등록비 1만원) http://goo.gl/forms/g499vl0c1f

Daum 카페 변혁한국 또는 4/14윈도우운동 검색

facebook https://www.facebook.com/4/14윈도우, Korea

제10회 4/14윈도우포럼

"4/14윈도우"란 4~14세 연령층을 선교의 파트너로 인식하며 그들을 일으키는 운동입니다

교회의 가정세우기

성경적 학부모 모델링을 위하여

2017.4.10~11(월~화)

오전 9시 30분–오후 6시 _ 서초구 **사랑의교회** 남측 B5/B4층

다음세대를 위해 교회–가정 연계, 교회의 학부모 훈련 정착이 절실합니다

제1일 주강사
- **장순흥 총장** (한동대학교) – 종교개혁과 4/14윈도우운동
- **박상진 교수** (장신대학교) – 다음세대를 위한 교회 교육 새 판 짜기
- **Jeremy West 아태본부장** (OneHope) – 미국 부모의 모델링
- **강안삼 대표** (God Family) – 가정과 교회가 하나되는 꿈

제2일 주강사
- **김용태 교수** (트리니티 신대원대학교) – 성경적 자녀 교육과 부모의 역할
- **송근후 교장** (도촌초등학교) – 공교육에서 기독학부모의 바람직한 역할과 영향
- **김성묵 장로** (온누리교회) – 아버지학교의 부모 교육 주안점
- **이종삼 교장** (꿈의학교) – 기독교 대안학교 학부모 교육 주안점
- **이시영 장로** (전 UN 대사) – 위기의 차세대 교육과 교회공동체의 책임



주 최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 The Korea World Missions Association / 변혁한국 Transformation KOREA

주 관 4/14 window KOREA / 할렐루야교회 Hallelujah Community Church

후 원 CTS기독교TV / 국민일보 / OneHope / 사랑의교회 / PROMISE CHURCH / erom / GOODTV

참가대상 교회 담임목사, 교역자, 교사, 학부모, 선교사 및 관심자

문의 . 070-4624-1076, 010-4538-1076

등록신청 온라인 등록처 (등록비 1만원) KEB하나은행 322-890046-81004 국제사랑의봉사단

DAUM 카페 변혁한국 또는 4/14윈도우운동 검색

facebook https://www.facebook.com/4/14윈도우, Korea